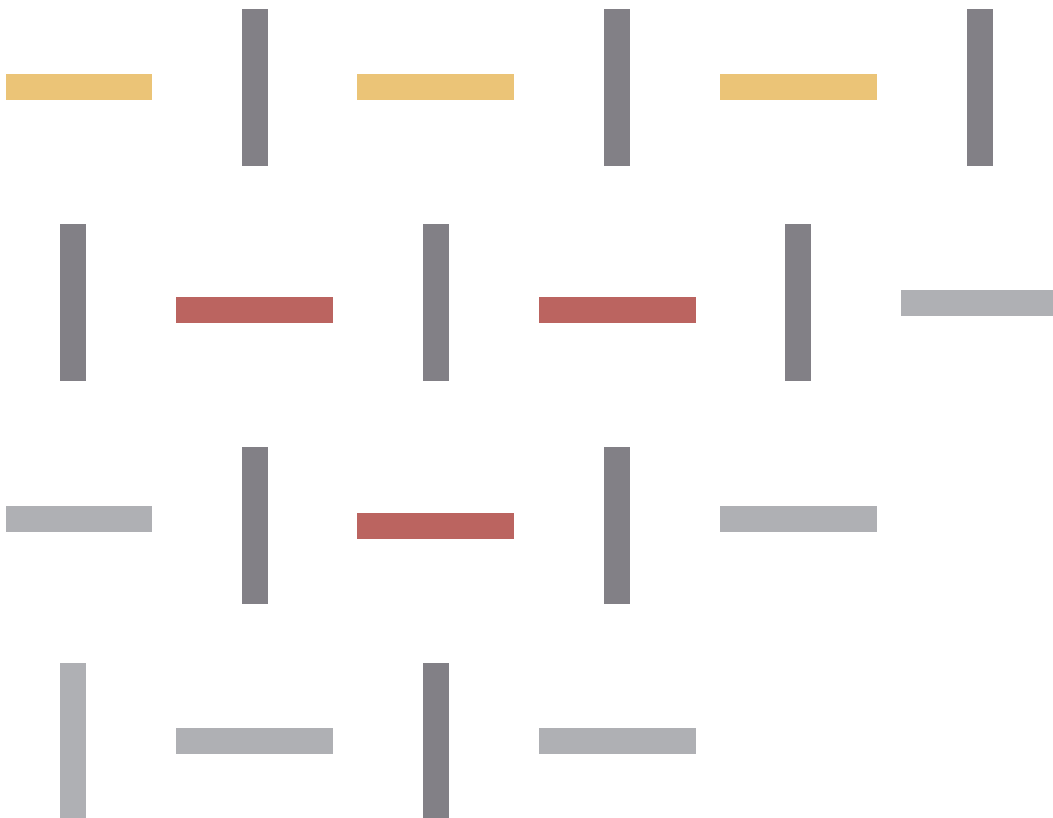


울산시 청년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 Study on Gender Consciousness Enhancement Strategy for
Employment of Young Women in Ulsan Metropolitan City

배미란



울산시 청년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 Study on Gender Consciousness Enhancement Strategy for
Employment of Young Women in Ulsan Metropolitan City

배미란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 Study on Gender Consciousness Enhancement
Strategy for Employment of Young Women
in Ulsan Metropolitan City

■ ■ ■

배미란(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Content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II.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	11
1. 조사 결과	11
(1) 향후 취업 의향	11
(2) 본인 또는 청년여성 취업 이유	12
(3)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	13
(4) 취업준비 시작 시기	14
(5) 취업을 위한 노력	15
(6) 진로목표의 달성 자신감	16
2. 검토	24
III. 청년여성의 취업 애로요인	21
1. 조사결과	21
(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21
(2) 미취업 상태 졸업의 일반적 원인	34
(3)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42
2. 검토	50
IV. 취업관련 젠더의식 및 관련 프로그램	55
1. 조사결과	55
(1) 취업관련 젠더의식	55
(2)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71
2. 검토	75

V. 결론 81

부록 1. 설문지 87

표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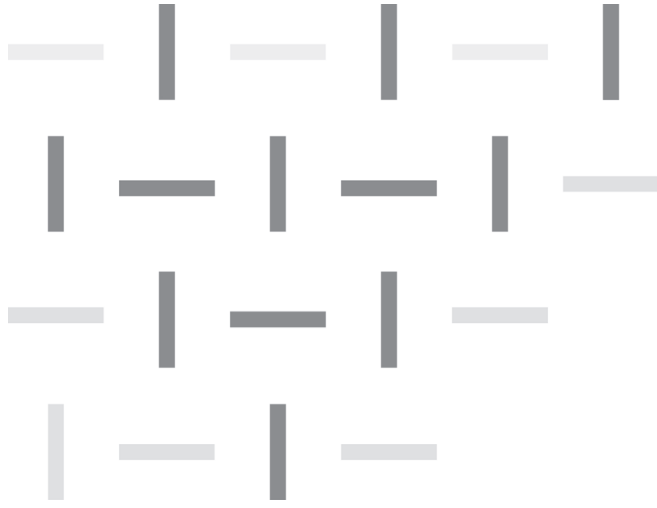
〈표 1-1〉 조사 설계	5
〈표 1-2〉 조사 내용	5
〈표 1-3〉 응답자 특성	6

그림목차

〈그림 2-1〉 향후 취업 의향	11
〈그림 2-2〉 본인/청년여성 취업 이유	12
〈그림 2-3〉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	13
〈그림 2-4〉 취업준비 시작 시기	14
〈그림 2-5〉 취업위한 노력	15
〈그림 2-6〉 진로목표 달성 자신감	16
〈그림 3-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요약)	22
〈그림 3-1-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	23
〈그림 3-1-2〉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기 힘들	24
〈그림 3-1-3〉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경력이 부족함	25
〈그림 3-1-4〉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성차별을 느낌	26
〈그림 3-1-5〉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	27
〈그림 3-1-6〉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차별	28
〈그림 3-1-7〉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음	29
〈그림 3-1-8〉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음	30
〈그림 3-1-9〉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부족	31
〈그림 3-1-10〉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	32
〈그림 3-1-1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음	33
〈그림 3-1-12〉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창업자금이 부족함	34
〈그림 3-2〉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요약)	35
〈그림 3-2-1〉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목표 부재	36
〈그림 3-2-2〉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에 대한 열의 부족	37
〈그림 3-2-3〉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38

〈그림 3-2-4〉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이 잘 안되는 전공을 선택한 탓에	39
〈그림 3-2-5〉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에 ...	40
〈그림 3-2-6〉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공무원(임용고시 등)	41
〈그림 3-2-7〉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 (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	42
〈그림 3-3〉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요약)	43
〈그림 3-3-1〉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가사부담	44
〈그림 3-3-2〉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	45
〈그림 3-3-3〉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채용이나 배치 시 남성 선호	46
〈그림 3-3-4〉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외모관리에 대한 부담(화장, 성형 등)	47
〈그림 3-3-5〉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문화	48
〈그림 3-3-6〉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불평등한 근로여건 (승진 상의 차별, 낮은 임금 등)	49
〈그림 3-3-7〉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인적 네트워크 부족	50
〈그림 4-1〉 취업관련 젠더의식(요약)	56
〈그림 4-1-1〉 취업관련 젠더의식 -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57
〈그림 4-1-2〉 취업관련 젠더의식 -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보다는 젊음과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	58
〈그림 4-1-3〉 취업관련 젠더의식 -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59
〈그림 4-1-4〉 취업관련 젠더의식 -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60
〈그림 4-1-5〉 취업관련 젠더의식 - 요즘은 여자들의 취업이 남자들의 취업보다 더 쉽다 ...	61
〈그림 4-1-6〉 취업관련 젠더의식 -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기 성별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62
〈그림 4-1-7〉 취업관련 젠더의식 -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	63

〈그림 4-1-8〉 취업관련 젠더의식 -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4
〈그림 4-1-9〉 취업관련 젠더의식 -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65
〈그림 4-1-10〉 취업관련 젠더의식 -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놓치는 일이 많다	66
〈그림 4-1-11〉 취업관련 젠더의식 - 현재의 고용체계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67
〈그림 4-1-12〉 취업관련 젠더의식 -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68
〈그림 4-1-13〉 취업관련 젠더의식 - 만약 취업 후, 출산, 자녀양육,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	69
〈그림 4-1-14〉 취업관련 젠더의식 -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70
〈그림 4-1-15〉 취업관련 젠더의식 - 취업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	71
〈그림 4-2〉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참여 경험 및 횟수	72
〈그림 4-3〉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73
〈그림 4-4〉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후 생각 전환 여부	74
〈그림 4-5〉 향후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75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00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00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한다는 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와 함께 자아실현이나 삶의 목표로 이해되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나 취업의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가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어느 연령대 할 것 없이 취업이나 고용유지는 쉽지 않았던 일이 되었으며, 이에 고용창출 등 일자리 정책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관통하는 핵심과제로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여성의 취업이나 고용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음. 즉,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육아와 가사의 담당자로 인식되거나, 여성은 남성의 경제활동 보조자 정도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등과 관계됨.
-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항상 큰 격차를 보임. 그 중에서도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의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2018년 10월 현재, 울산광역시 여성의 고용률은 47.5%로, 동 시점을 기준으로 남성이 70.6%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며, 타 시·도와 비교할 때도 가장 낮은 수치임.¹⁾ 특히 울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울산여성의 고용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대과제로 삼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1)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성별 연령별 고용률(시도) 참조.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여성의 고용문제는 전 연령에 비추어 쉽지 않은 일이나,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여성뿐 아니라 청년여성을 위한 취업 정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울산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취업희망여성의 취업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 대해 울산 지역 20대 여성의 경우는 타 연령대에 비해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²⁾ 이는 20대 청년여성의 취업난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0대의 취업시장 진입실패는 곧 30대의 취업포기 또는 경력부족으로 인한 취업 좌절로 이어질 수 있어, 울산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20대 청년여성의 취업시장 진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여성고용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는 주로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사회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년남성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청년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청년여성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력개발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에 남성 중심적인 조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여성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방안이 요구됨.
-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방안으로써 “젠더의식 강화”를 들고 있음. 즉, 청년의 취업대책이나 활성화 방안이 청년여성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가사활동의 담당자라거나 남성 경제활동의 보조자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제 인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청년여성 스스로가 경제활동의 담당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울산광역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취업에 대한 울산 지역 청년여성의 인식 및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점 등을 파악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로써 젠더의식 강화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배미란,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울산시 여성인력 활용방안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고 있음. 즉, 울산광역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인식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울산광역시 청년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젠더의식 강화방안 마련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진행되었음.
- 동 조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은 아래와 같음.

〈표 1-1〉 조사 설계

구 분	조사 설계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이하 울산광역시 거주 여성
유효 표본	300표본
조사 방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8년 11월 29일 ~ 12월 3일

- 조사내용은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 등에 관한 설문과 함께 취업 관련 젠더의식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에 관한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2〉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	향후 취업 의향
	본인/청년여성 취업 이유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
	취업준비 시작 시기
	취업위한 노력
	진로목표 달성 자신감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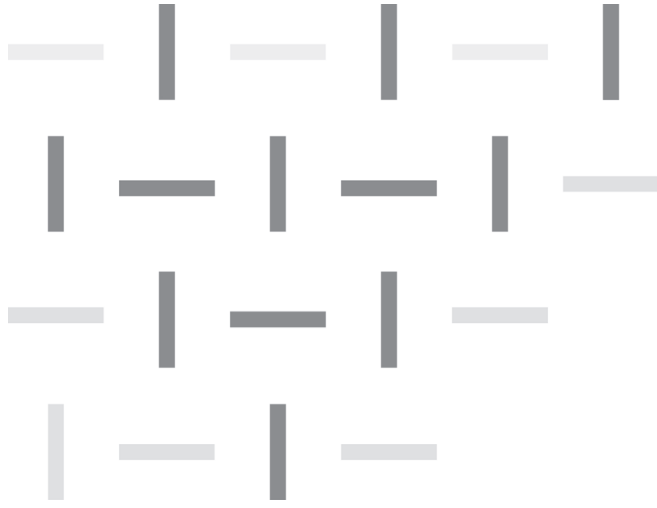
구분	조사 내용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취업관련 젠더의식 및 관련 프로그램	취업관련 젠더의식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참여 경험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참여 횟수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후 생각 전환 여부
	향후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전체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1-3〉 응답자 특성

전 체		사례수	비율(%)
연령	19세~21세	(100)	33.3
	22세~24세	(100)	33.3
	25세~27세	(50)	16.7
	28세~30세	(50)	16.7
	중구	(69)	23.0
거주지	남구	(105)	35.0
	동구	(43)	14.3
	북구	(47)	15.7
	울주군	(36)	12.0
	미혼	(294)	98.0
혼인 상태	기혼	(5)	1.7
	동거(사실혼)	(1)	0.3
	혼자 살고 있음	(70)	23.3
거주 형태	가족과 살고 있음	(213)	71.0
	기타	(17)	5.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
대학교 재학		(207)	69.0
대학교 졸업		(67)	22.3
대학원 재학		(19)	6.3
대학원 졸업		(1)	0.3
월평균 생활비	30만원 이하	(22)	7.3
	30이상~50만원 미만	(80)	26.7
	50이상~70만원 미만	(56)	18.7
	70이상~100만원 미만	(16)	5.3
	100이상~150만원 미만	(16)	5.3
	150이상~200만원 미만	(59)	19.7

		사례수	비율(%)
전 체		(300)	100.0
200만원 이상		(51)	17.0
생활비 주책임자	본인	(20)	6.7
	부모	(202)	67.3
	배우자(동거자 포함)	(4)	1.3
	본인과 부모 공동	(73)	24.3
	본인과 배우자 공동	(1)	0.3
현재 직업	학생	(217)	72.3
	취업준비생	(46)	15.3
	진학준비생	(1)	0.3
	수험생(공무원 등)	(36)	12.0



Ⅱ.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

- | | |
|----------|-----|
| 1. 조사 결과 | 011 |
| 2. 검토 | 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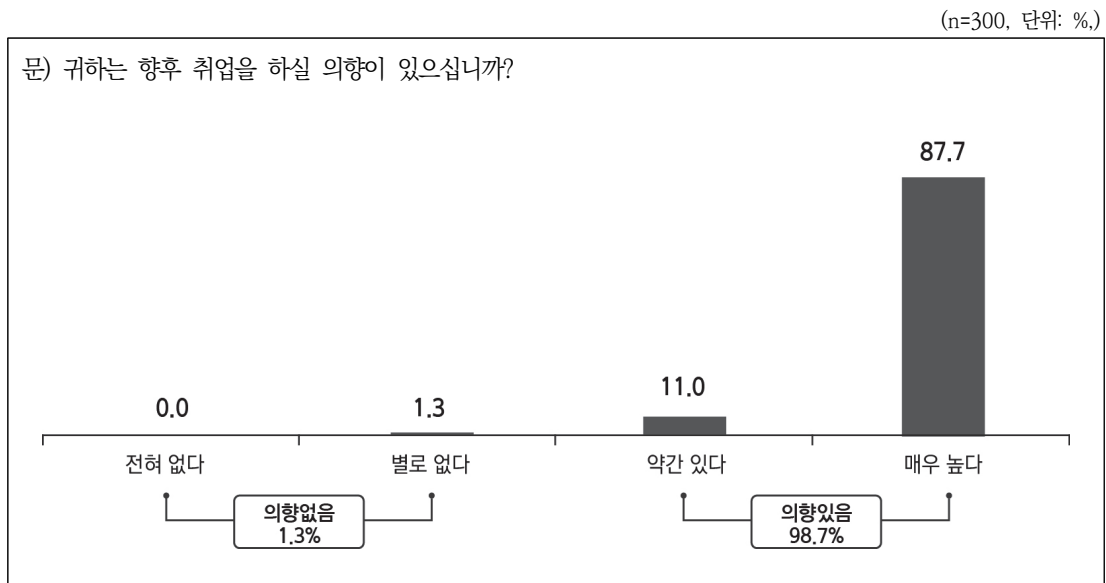
II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

1. 조사 결과

(1) 향후 취업 의향

○ 향후 취업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7%(매우 높다 87.7% + 약간 있다 11.0%)가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향후 취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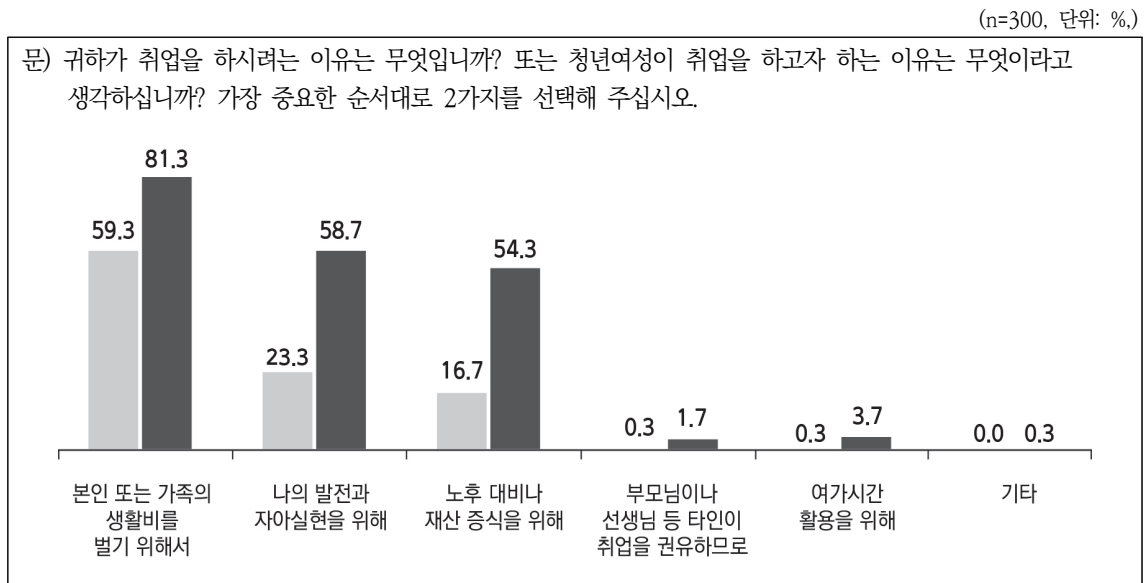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세 이상 응답자는 모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9세~21세의 경우 9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의향을 보임
- 거주형태별로는 혼자 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매우 높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92.9%로 타 거주 형태 대비 비교적 높았음

(2) 본인 또는 청년여성 취업 이유

- 본인 또는 청년여성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1순위 : 59.3% + 2순위 : 81.3%)를 주로 꼽음.
- 그 다음으로 1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나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23.3%), '노후 대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 본인/청년여성 취업 이유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27세의 경우 '나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가 42.0%로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36.0%) 보다 높은 응답을 보임.
- 최종 학력별 분석 결과, '나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에 대한 응답 비율은 대학원 재학에서 3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노후 대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에 대한 응답 비율은 대학교

졸업에서 25.4%로 타 학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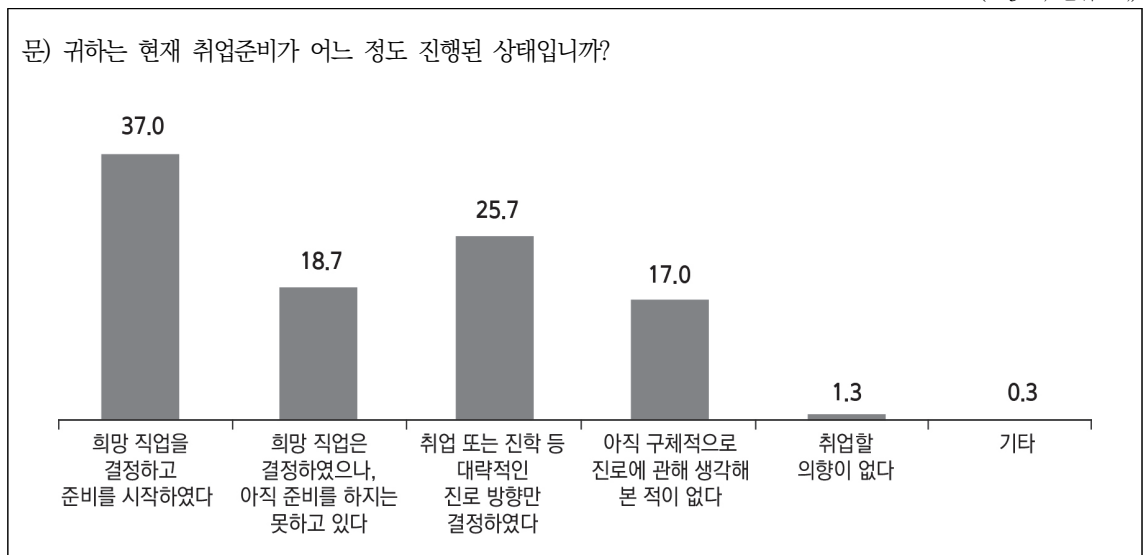
- 생활비 주책임자별로 살펴본 결과, ‘노후 대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에 대한 응답은 부모(23.8%), 배우자(25.0%)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

-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를 조사한 결과, ‘희망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가 3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또는 진학 등 대략적인 진로 방향만 결정하였다’(25.7%), ‘희망 직업은 결정하였으나, 아직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1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

(n=3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희망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에 대한 응답은 25세~27세, 28세~30세가 각각 68.0%, 86.0%로 24세 이하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19세~21세, 22세~24세 응답자는 ‘취업 또는 진학 등 대략적인 진로 방향만 결정하였다’를 주로 꼽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세~21세의 응답자 중, ‘희망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다’(12.0%), ‘희망 직업은 결정하였으나, 아직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18.0%), ‘취업 또는 진학 등 대략적인 진로 방향만 결정하였다’(41.0%), ‘아직 구체적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26.0%), ‘취업 의향이 없다’(3.0%)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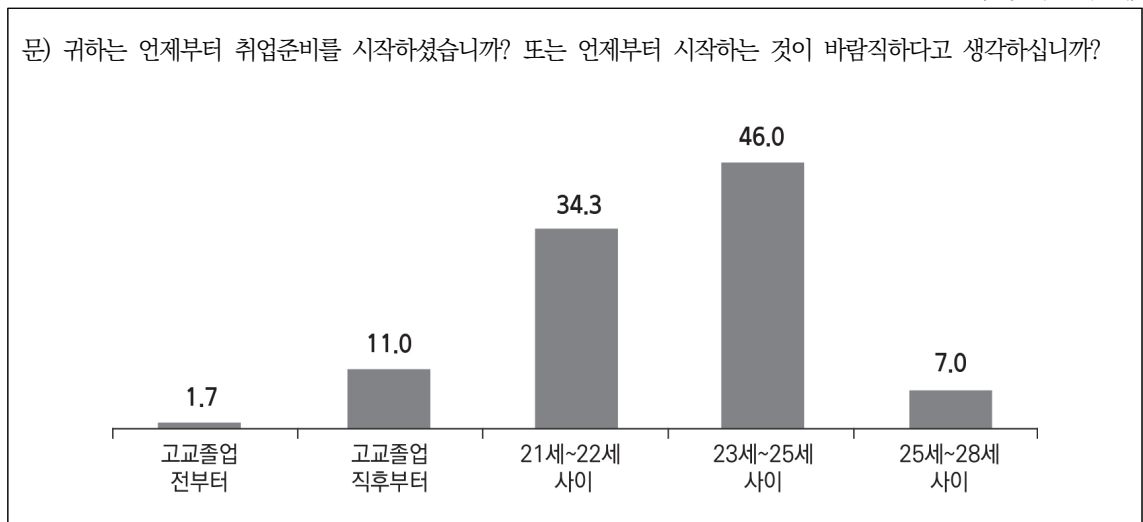
- 다음으로 22세~24세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위의 선택문항 순서에 따라 22.0%, 27.0%, 32.0%, 17.0%,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25세~27세의 경우, 68.0%, 18.0%, 8.0%, 6.0%, 0.0%순, 28세~30세의 경우, 86.0%, 4.0%, 0.0%, 10.0%, 0.0%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직업별로 보면, 취업준비생의 95.7%는 ‘희망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를 응답하여 타 직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수험생(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위의 선택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가 94.4%로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15.2%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4) 취업준비 시작 시기

- 취업준비를 시작한 시기 또는 취업준비를 시작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 ‘23세~25세 사이’가 4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21세~22세 사이’ 34.3%, ‘고교졸업 직후부터’ 11.0% 등의 순임.

〈그림 2-4〉 취업준비 시작 시기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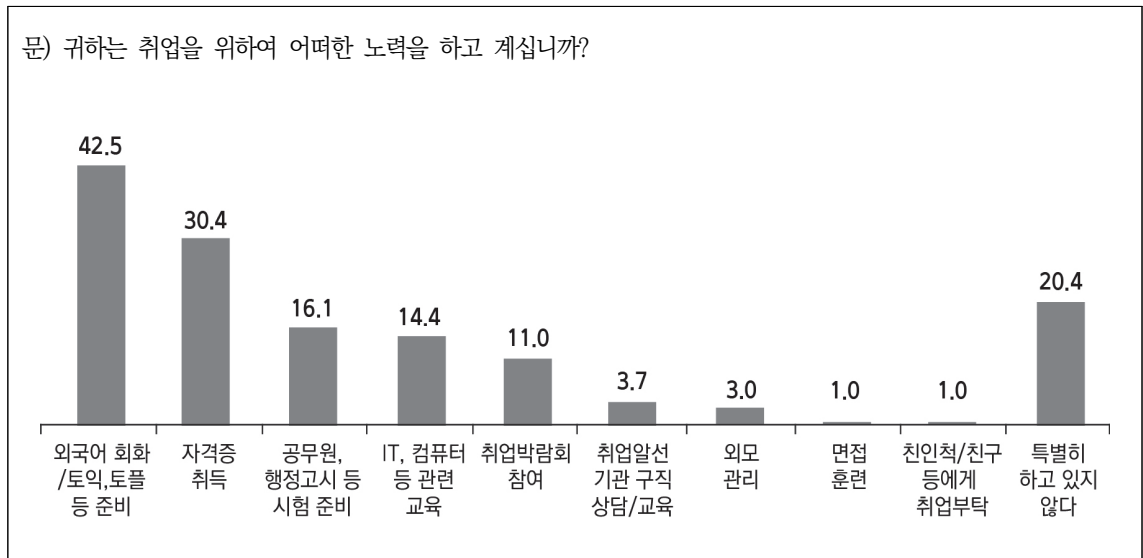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교졸업 직후부터'에 대한 응답 비율은 19세~21세에서 17.0%로 가장 높았으며, '25세~28세 사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28세~30세에서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형태별로는 '21세~22세 사이' 응답 비율은 가족과 살고 있는 응답자에서 37.1%로 조사되어 타 형태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5) 취업을 위한 노력

- 취업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외국어 회화/토익, 토플 등 준비'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취득' 30.4%, '공무원, 행정고시 등 시험 준비' 1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20.4%로 조사됨.

〈그림 2-5〉 취업위한 노력

(n=300, 단위: %)



- 연령대별 분석 결과, '외국어 회화/토익, 토플 등 준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응답은 25세~27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행정고시 등 시험 준비', '취업박람회 참여'에 대한 응답은 28세~30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응답은 24세 이하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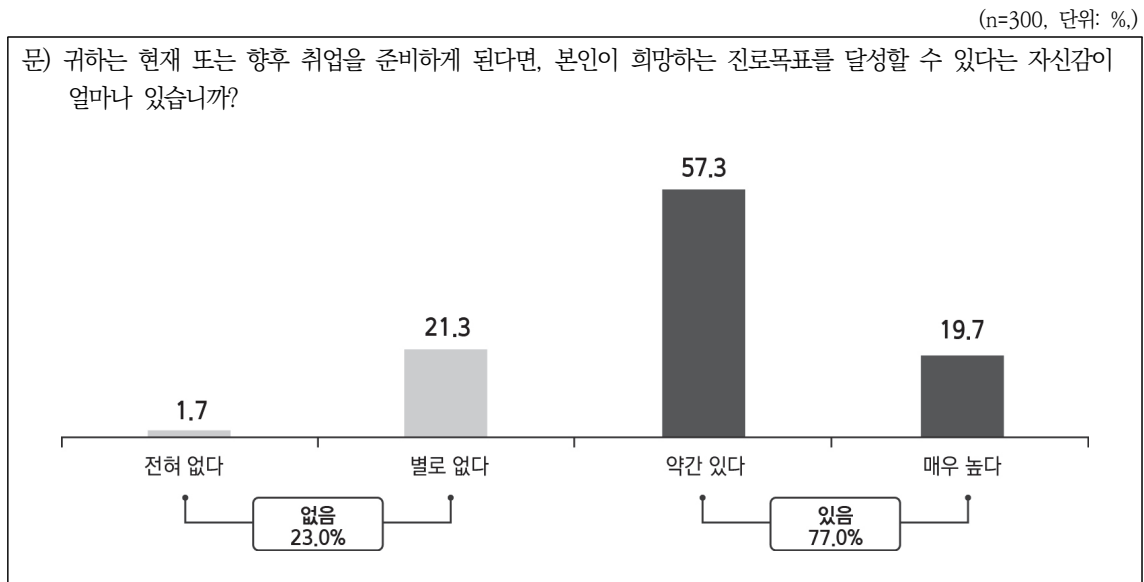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 최종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알선기관 구직 상담/교육'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 응답자의 경우 '공무원, 행정고시 등 시험 준비'가 42.4%로 가장 높았음.

(6) 진로목표의 달성 자신감

-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0%는 진로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매우 높다 : 19.7% + 약간 있다 : 57.4%).

〈그림 2-6〉 진로목표 달성 자신감



-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감 '있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최종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신감 '있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그리고 거주형태별로는 혼자 살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자신감 '있음'을 선택한 비율이 82.9%(매우 높다 : 21.4% + 약간 있다 : 61.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2. 검토

-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과 관련해서는 주로 향후 취업의향, 본인 또는 청년 여성의 취업 이유, 현재 취업준비 진행 상태, 취업준비 시작 시기, 취업을 위한 노력, 진로목표의 달성 자신감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음.
- 먼저 향후 취업의향과 관련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취업할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고무적이나, 19세~21세의 경우에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 시기의 목표 설정이 본인의 경력 등 취업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19세~21세 사이의 여성에 대한 취업의식 고취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거주형태별로는 혼자 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생활 영위가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다음으로 본인 또는 일반적으로 청년 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동기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스스로를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응답자의 현재 취업준비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 희망 직업을 결정하였고, 취업준비를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7.0%임. 단일 문항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이와 같이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의향은 높은 데 반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진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17.0%에 달해, 취업 의향에 비해 취업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특성은 학생인 경우에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 재학생 등에 대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본인이 취업준비를 시작한 시기 또는 취업준비를 시작하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 23세~25세 사이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최종학력 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고교졸업 전부터 준비한다는 응답은 16.7%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교 졸업 후 2~5년이 경과한 시점인 21~25세 사이에 취업 준비를 시작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에는 고교졸업 직후부터를 선택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고, 대체로 21~25세 사이를 선택하고 있으며 23~25세 사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년여성들은 취업의욕이 높고, 스스로를 생계 책임자로 생각하는 경향도 높으나, 취업준비 시기 자체는 실제로 본인이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가까워진 때에 비로서 취업준비를 해야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여겨짐.

- 현재 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외국어 회화 등 외국어 관련 공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42.5%로 가장 높았고,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도 20.4%로 5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에 특화된 준비가 아니라 주로 토익이나 토플 등 외국어 공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본인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의 77.0%가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해, 진로목표 달성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취업 준비 초기보다는 취업 준비를 해 나가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음.



Ⅲ. 청년여성의 취업 애로요인

1. 조사 결과	021
2. 검토	050

Ⅲ

청년여성의 취업 애로요인

1.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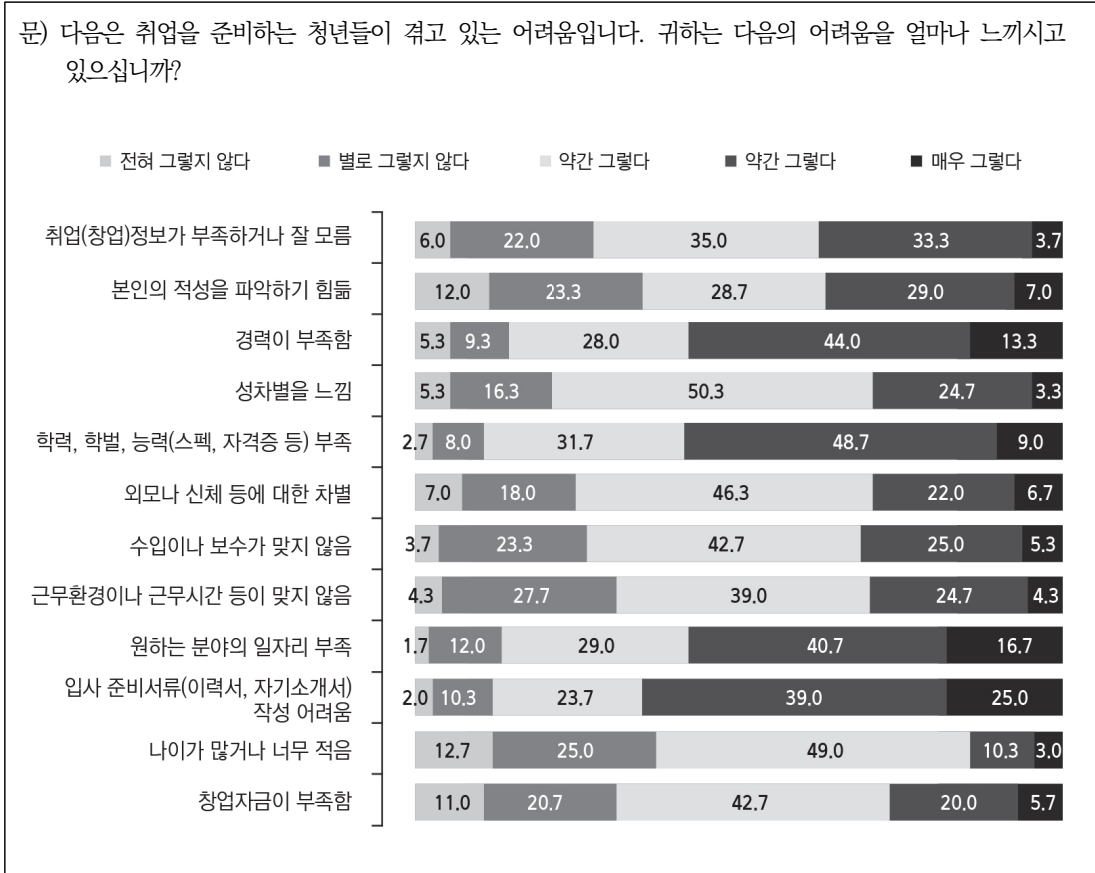
(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이 64.0%(매우 그렇다 : 25.0% + 그렇다 : 39.0%)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57.7%), '경력이 부족함',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부족'(각 57.3%)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요약)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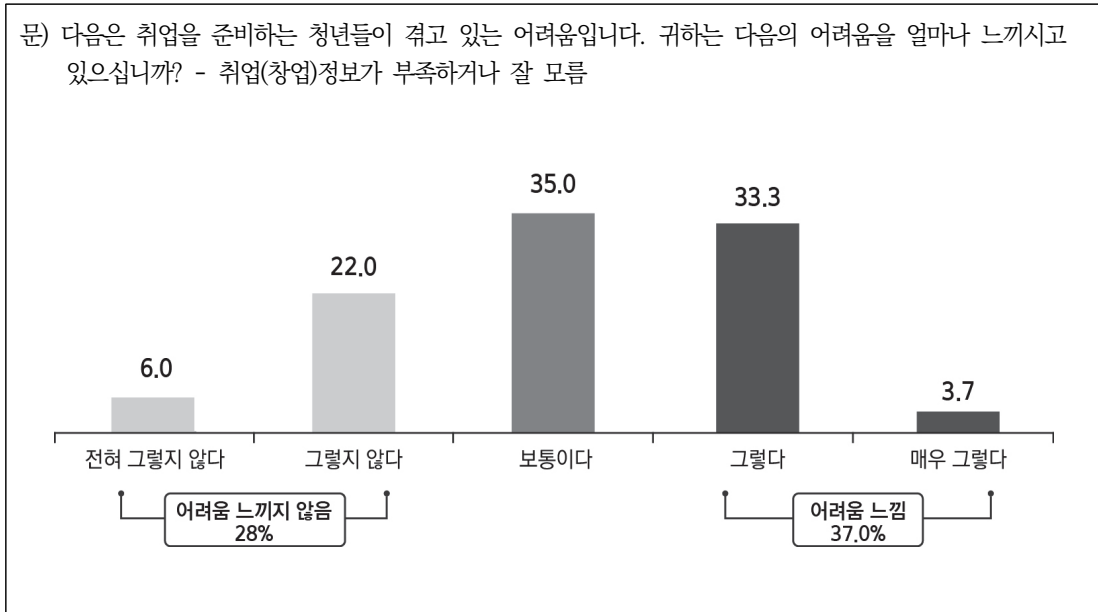


1) 취업(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에 대한 어려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0%(매우 그렇다 : 3.7% + 그렇다 : 33.3%)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

(n=300, 단위: %)



- 연령대별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려움 느낌’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창업)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3.33점, 대학원 재학 2.53점으로 조사되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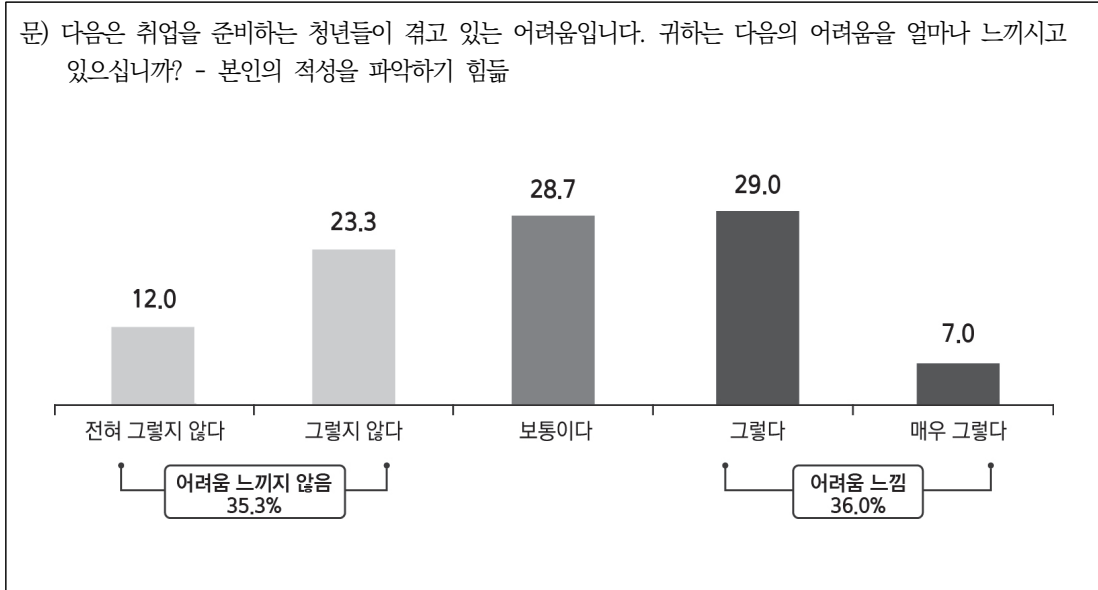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기 힘들

-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기 힘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0%(매우 그렇다 : 7.0% + 그렇다 : 29.0%)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2〉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기 힘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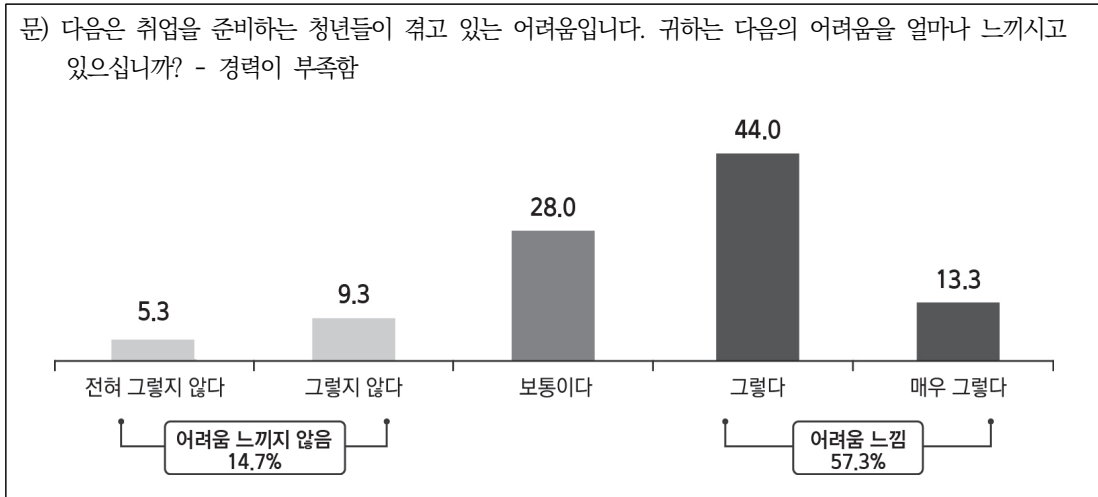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5점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성 파악의 어려움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어려움 느낌’ 응답 비율은 고졸 이하가 50.0%로 타 학력층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보면, 학생의 5점 평균이 3.08/점으로 취업준비생(2.54점), 수험생(2.69점) 대비 높게 나타나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경력이 부족함

- ‘경력이 부족함’에 대한 청년여성의 어려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3%(매우 그렇다 : 13.3% + 그렇다 : 44.0%)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경력이 부족함

(n=300, 단위: %)



- 연령대별 분석 결과, 22세~24세의 '어려움 느낌' 응답 비율이 64.0%로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보면, 학생의 5점 평균이 3.59점으로 취업준비생(3.48점), 수험생(3.03점) 대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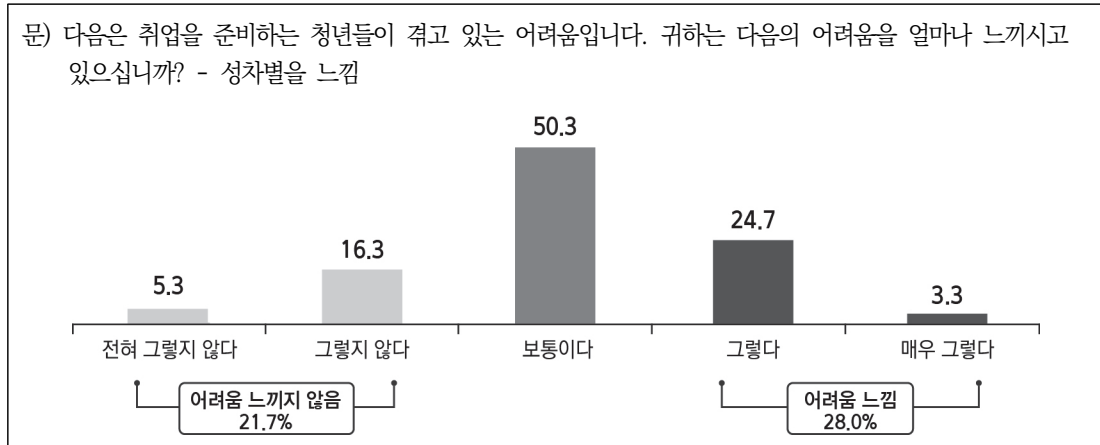
4) 성차별을 느낌

- '성차별을 느낌'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0%(매우 그렇다 : 3.3% + 그렇다 : 24.7%)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4〉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성차별을 느낌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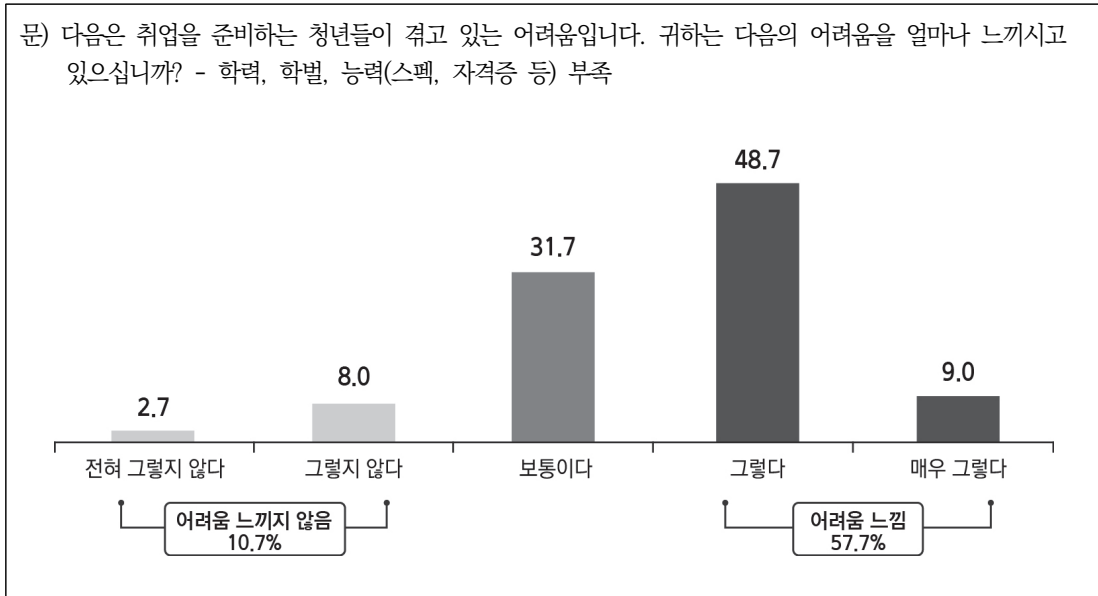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려움 느낌'에 대한 응답 비율은 25세~27세가 38.0%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직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의 5점 평균이 3.17점으로 학생(3.05점), 수험생(2.83점)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5)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

-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에 대한 어려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7%(매우 그렇다 : 9.0% + 그렇다 : 48.7%)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

(n=3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27세의 5점 평균이 3.70점으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의 5점 평균이 4.1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학원 재학(3.32점), 대학원 졸업(3.00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직업별로는, 취업준비생의 5점 평균이 3.72점으로 가장 높아 타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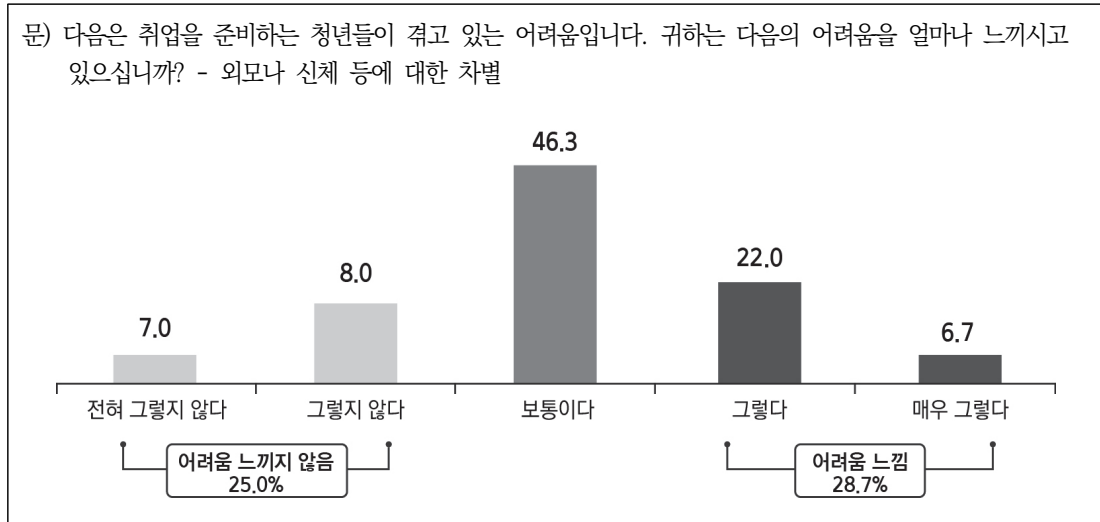
6)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차별

-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8.7%(매우 그렇다 : 6.7% + 그렇다 : 22.0%)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6〉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차별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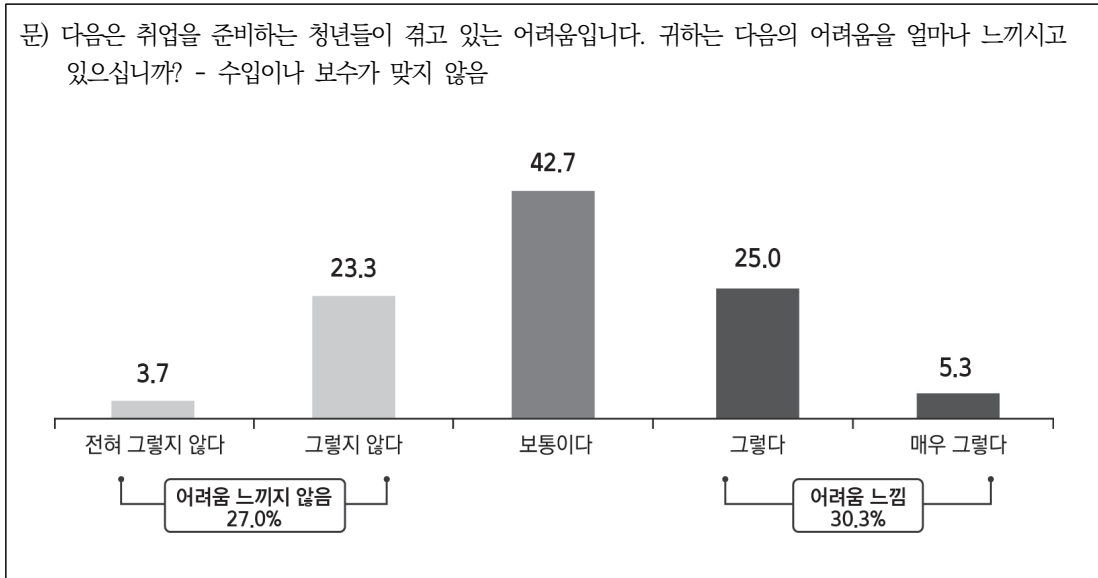
-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한 어려움 체감도는 연령대별로 22세~24세(5점 평균 3.16 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살펴보면 ‘어려움 느낌’에 대한 응답 비율은 취업준비생이 3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음

-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음’에 대한 어려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3%(매우 그렇다 : 5.3% + 그렇다 : 25%)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음

(n=3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려움 느낌’에 대한 응답 비율은 28세~30세가 34.0%로 가장 높았음.
- 배우자가 생활비 주책임자인 응답자의 경우 50.0%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타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움 체감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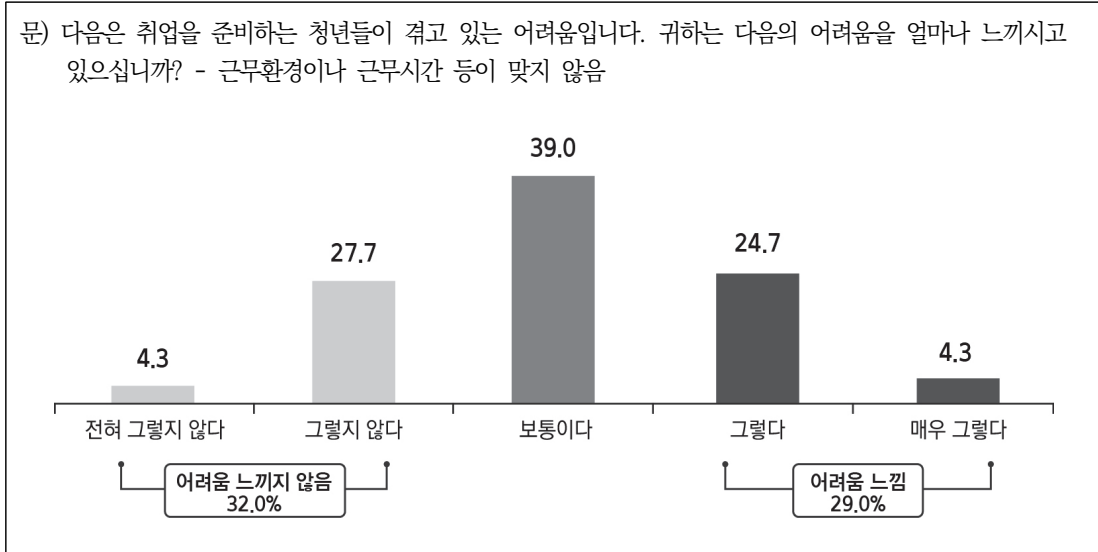
8)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음

-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음’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0%(매우 그렇다 4.3% + 그렇다 24.7%)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8〉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음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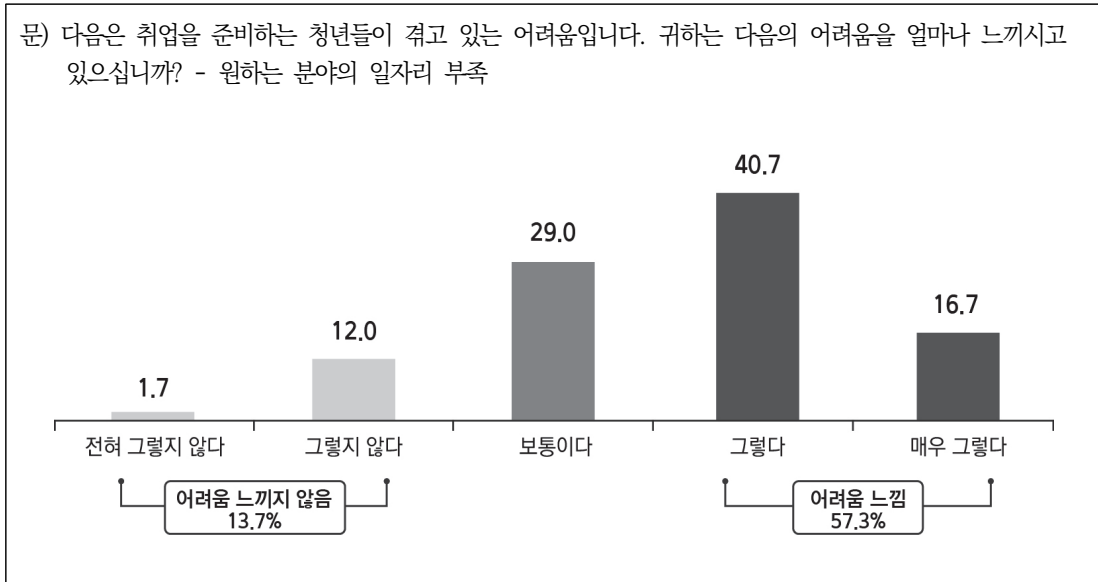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점 평균 점수는 22세~24세가 3.03점으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준비생의 5점 평균이 3.0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타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부족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어려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3%(매우 그렇다 : 16.7% + 그렇다 : 40.7%)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9〉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부족

(n=300, 단위: %)



- 연령대별 분석 결과, 5점 평균 점수는 28세~30세에서 3.70점으로 조사되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살펴보면, 수험생의 5점 평균이 3.7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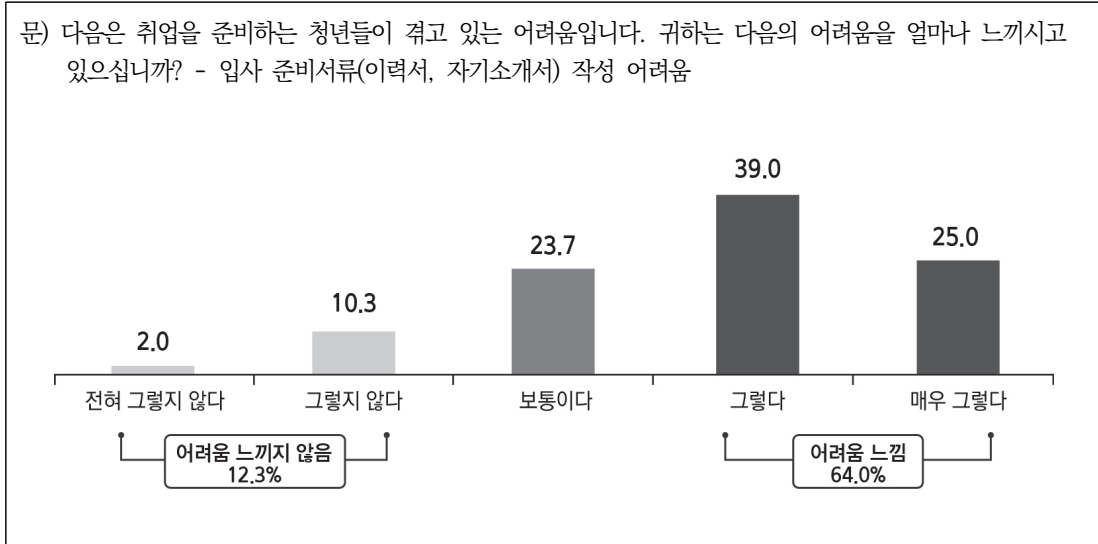
10)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

-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의 64.0%(매우 그렇다 : 25.0% + 그렇다 : 39.0%)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10〉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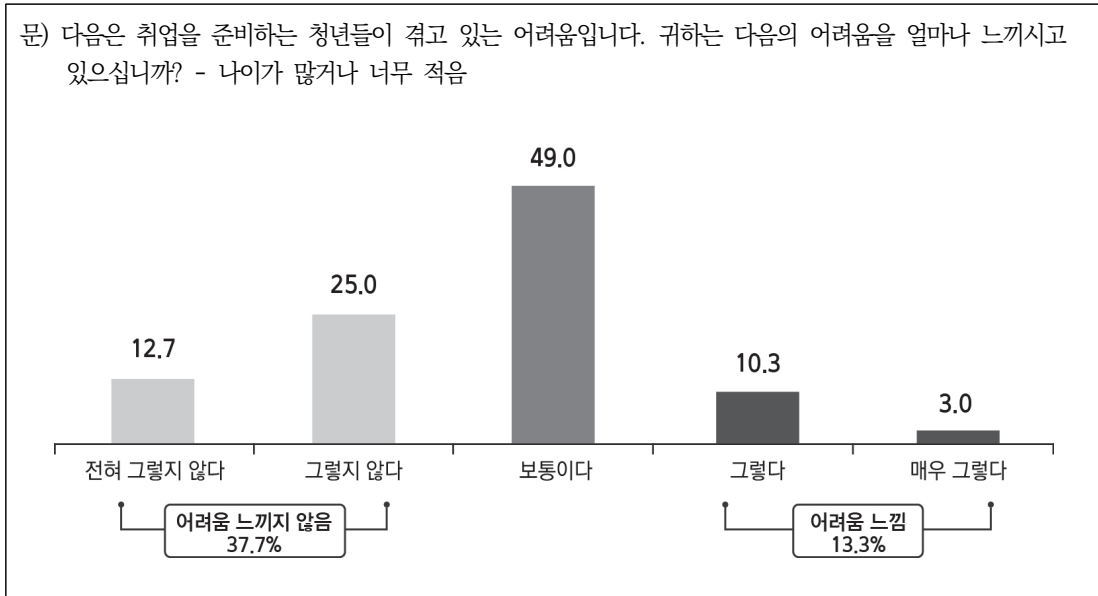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세~24세의 ‘어려움 느낌’ 응답 비율이 73.0%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가 4.67점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직업별로는, 수험생의 5점 평균이 3.92점으로 타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음

-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음’에 대한 어려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3%(매우 그렇다 : 3% + 그렇다 : 10.3%)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1〉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음

(n=3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5세~27세 2.96점, 28세~30세 2.92점으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 2.65점, 기혼 3.00점으로 기혼자의 어려움 체감도가 미혼자 대비 높았음.
-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자의 5점 평균이 3.00점으로 타 학력층 대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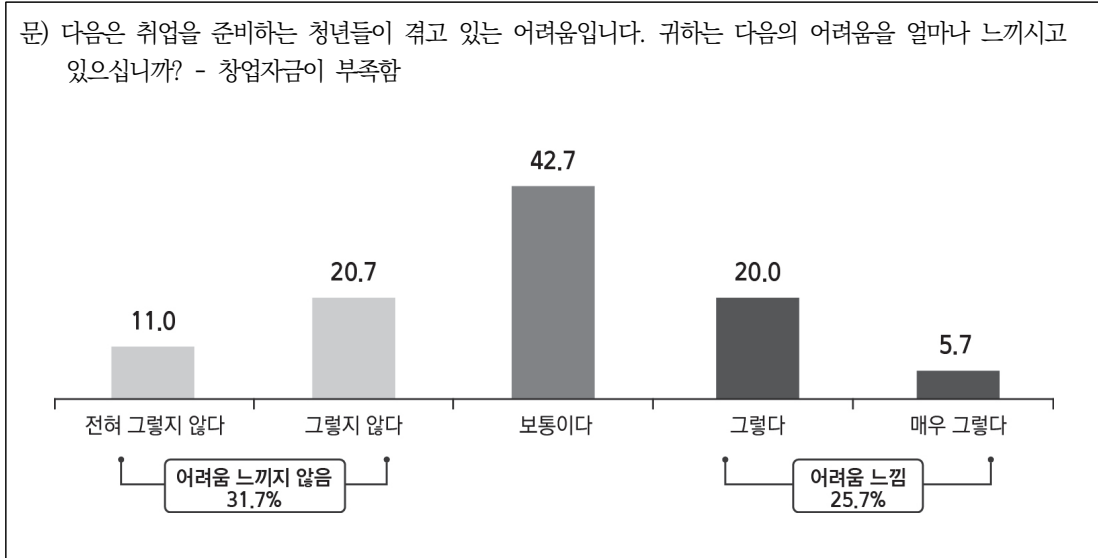
12) 창업자금이 부족함

- ‘창업자금이 부족함’에 대해 어려움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7%(매우 그렇다 : 5.7% + 그렇다 : 20.0%)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1-12〉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 창업자금이 부족함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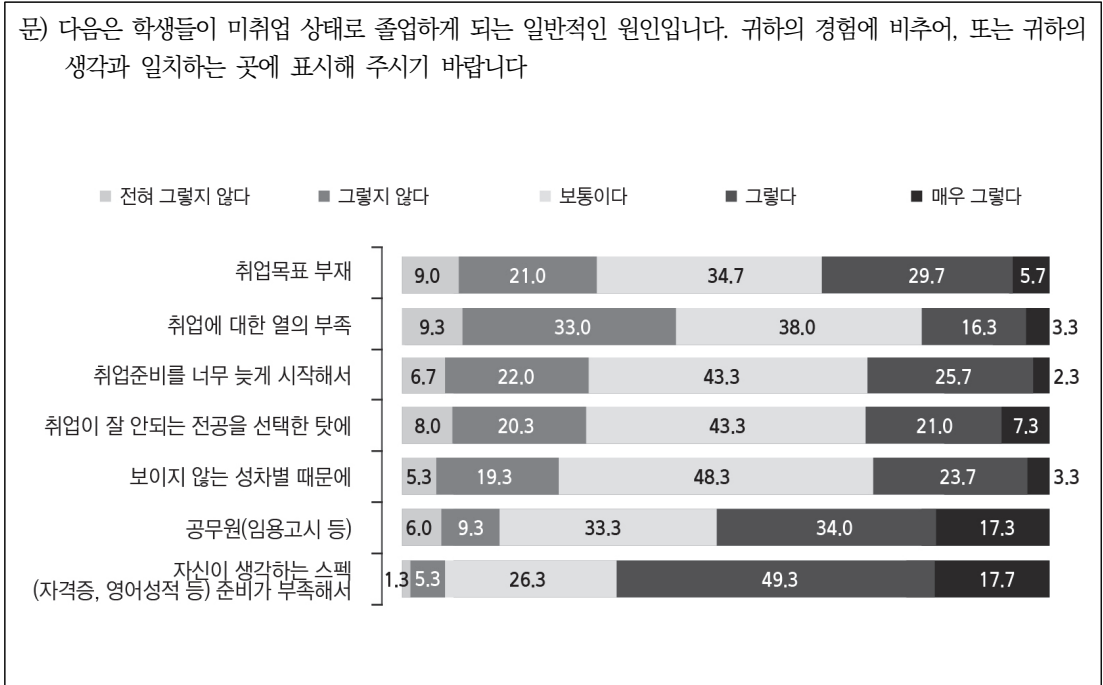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려움 느낌’에 대한 응답 비율은 28세~30세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생활비 주 책임자가 배우자인 응답자는 5점 평균이 3.5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미취업 상태 졸업의 일반적 원인

-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에 대한 동의 비율이 67.0%(매우 그렇다 17.7% + 그렇다 49.3%)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공무원(임용고시 등)’(51.3%), ‘취업목표 부재’(3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정도(요약)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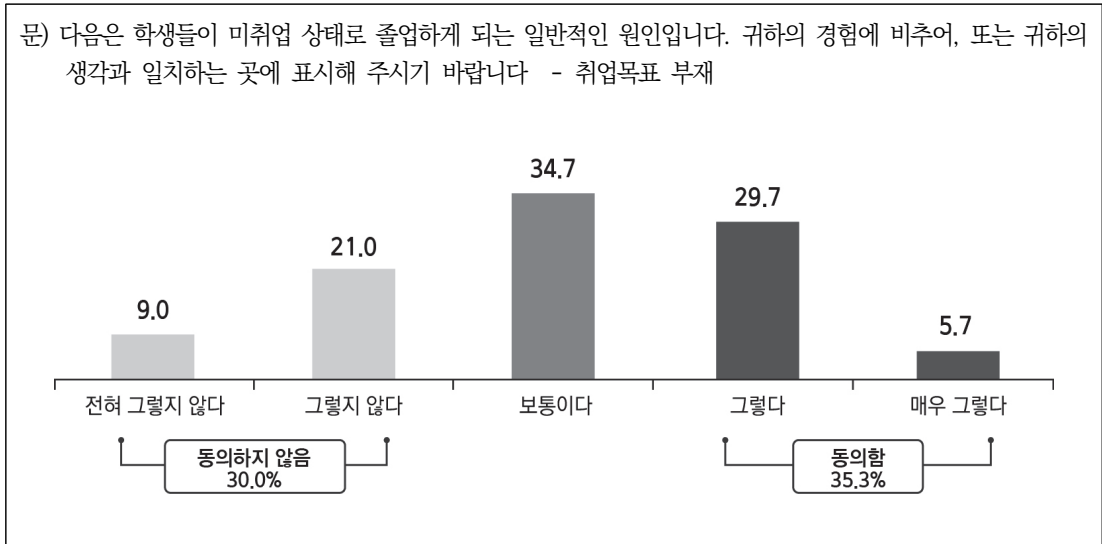
1) 취업목표 부재

○ ‘취업목표 부재’로 인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5.3%(매우 그렇다 : 5.7% + 그렇다 : 29.7%)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2-1〉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목표 부재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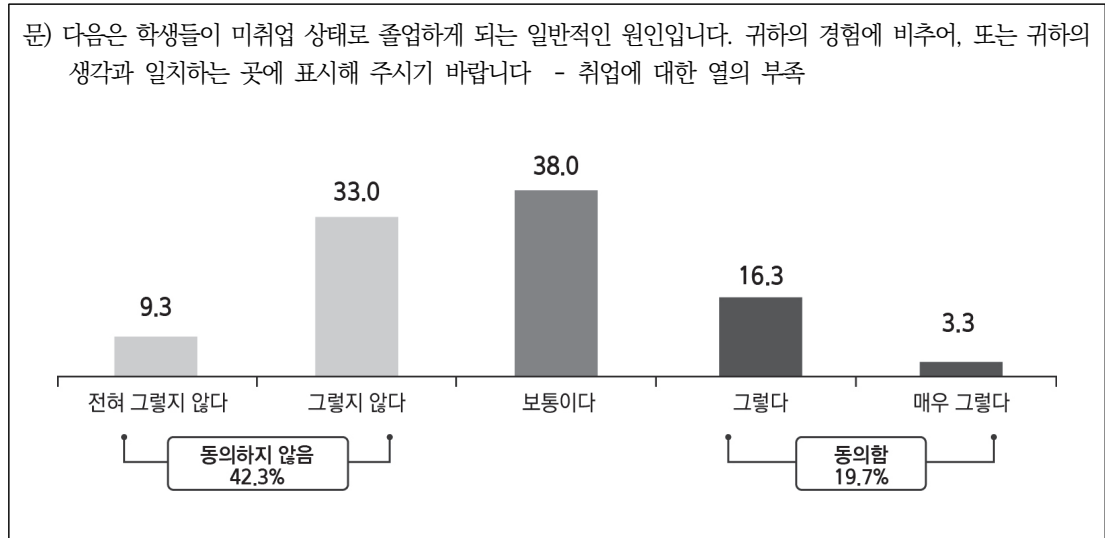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5점 평균을 살펴보면, 22세~24세가 3.15점, 19세~21세가 3.13점으로 조사되어 25세 이상 대비 동의하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학생의 5점 평균이 3.12점으로 취업준비생(2.93점), 수험생(2.50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취업에 대한 열의 부족

- '취업에 대한 열의 부족'으로 인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19.7%(매우 그렇다 : 3.3% + 그렇다 : 16.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에 대한 열의 부족

(n=300, 단위: %)



- 연령대별 분석 결과, 28세~30세의 5점 평균이 2.40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업별로 살펴보면, 수험생의 5점 평균이 2.33점으로 타 직업 대비 비교적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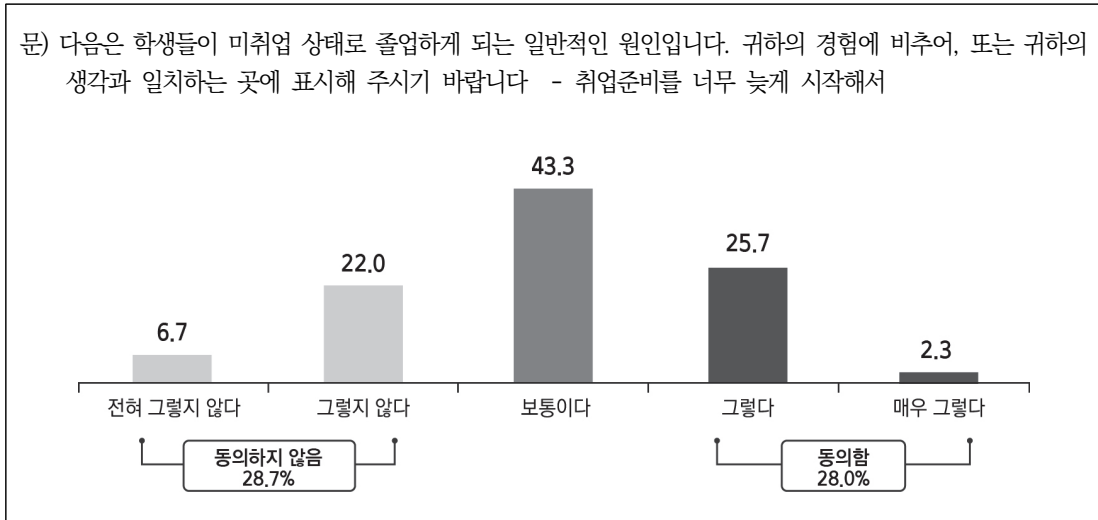
3) 취업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 ‘취업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8.0%(매우 그렇다 : 2.3% + 그렇다 : 2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2-3〉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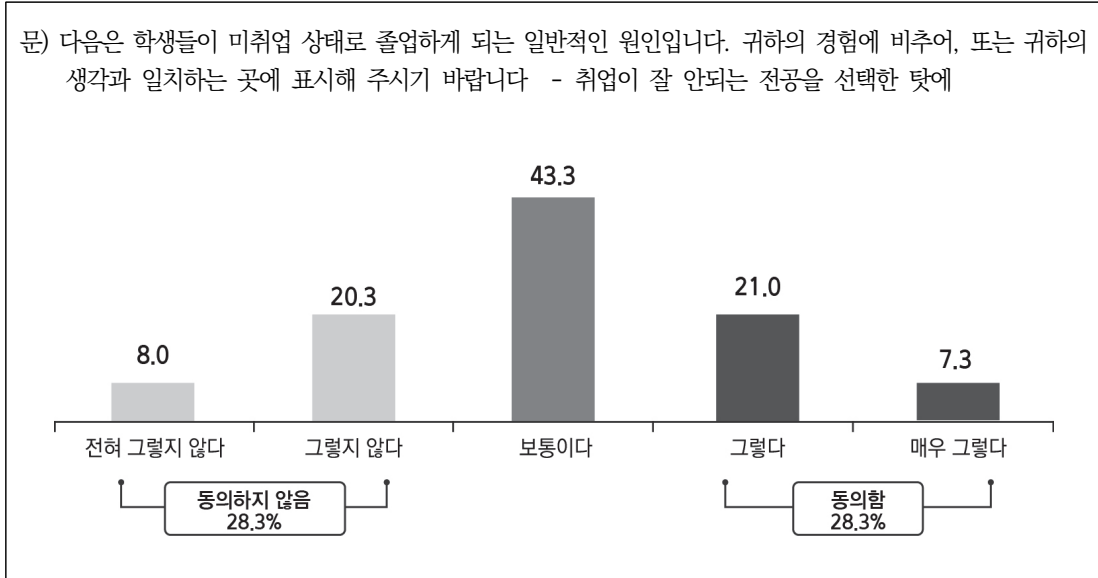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7세 이하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5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8세~30세는 2.62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자 2.96점, 기혼자 2.20점으로 미혼자의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직업이 학생인 응답자의 30.9%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4) 취업이 잘 안되는 전공을 선택한 탓에

- ‘취업이 잘 안되는 전공을 선택한 탓에’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8.3%(매우 그렇다 : 7.3% + 그렇다 : 21.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취업이 잘 안되는 전공을 선택한 탓에

(n=3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21세의 ‘동의함’ 응답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음. 반면 28세~30세의 경우 12.0%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교 재학(3.06점), 대학원 재학(3.05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교 졸업(2.79점)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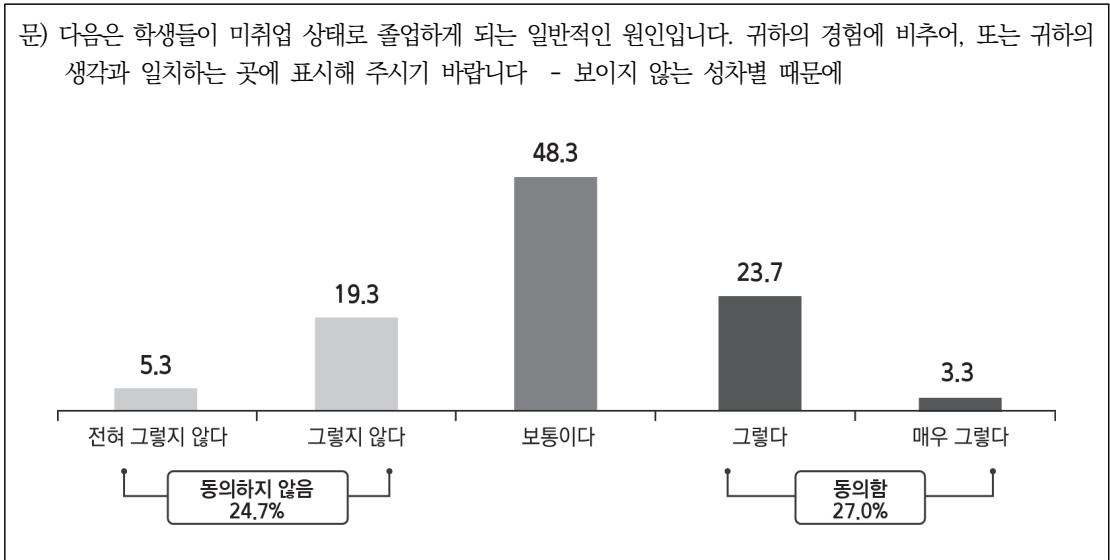
5)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에

-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에’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7.0%(매우 그렇다 : 3.3% + 그렇다 : 23.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2-5〉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에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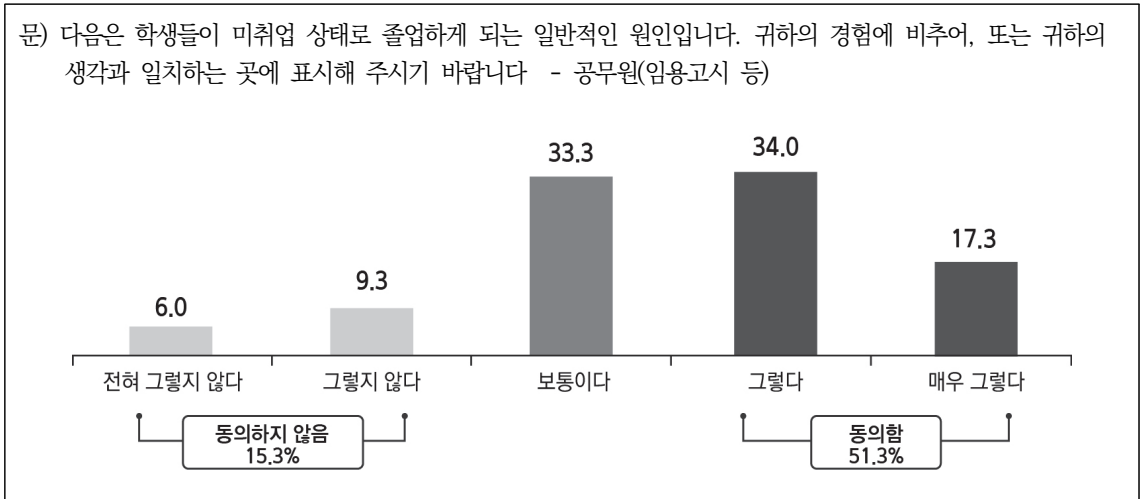
-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에’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 지에 대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세~24세의 ‘동의함’ 응답 비율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8세~30세는 16.0%로 다소 낮았음.
- 최종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원 재학이 2.95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별로는, 취업 준비생(3.04점)의 동의 정도가 타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수험생(2.97점)은 비교적 낮았음.

6) 공무원(임용고시 등) 시험 준비

- ‘공무원(임용고시 등)’로 인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1.3%(매우 그렇다 : 17.3% + 그렇다 : 34.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6〉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공무원(임용고시 등)

(n=300, 단위: %)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5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현재 직업이 수험생인 응답자의 77.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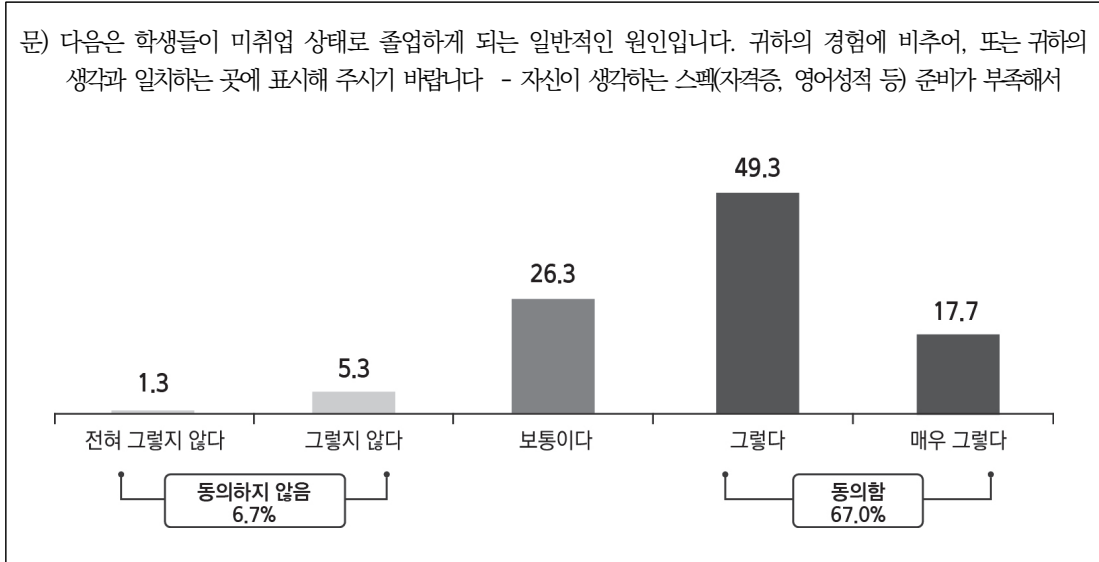
7)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

-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0%(매우 그렇다 : 17.7% + 그렇다 : 49.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2-7〉 미취업 상태 졸업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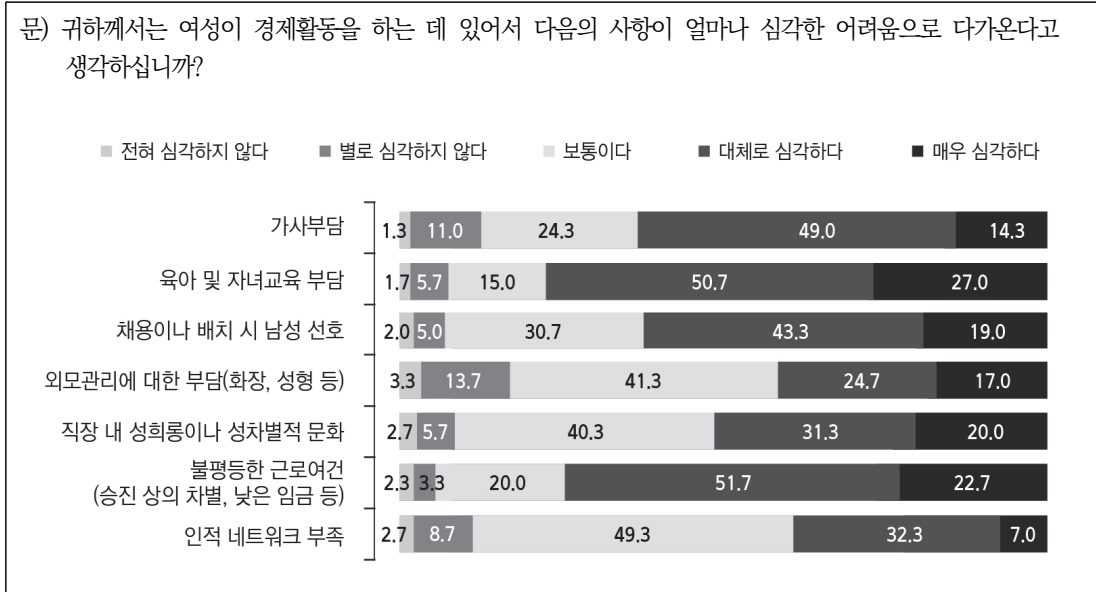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5점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4.03점), 대학원 재학(4.05점)의 5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직업별 분석 결과, 학생의 5점 평균이 3.66점으로 타 직업군 대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을 파악해본 결과,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과 '불평등한 근로여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외모관리에 대한 부담(화장, 성형 등)'과 '인적 네트워크 부족'은 상대적으로 심각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요약)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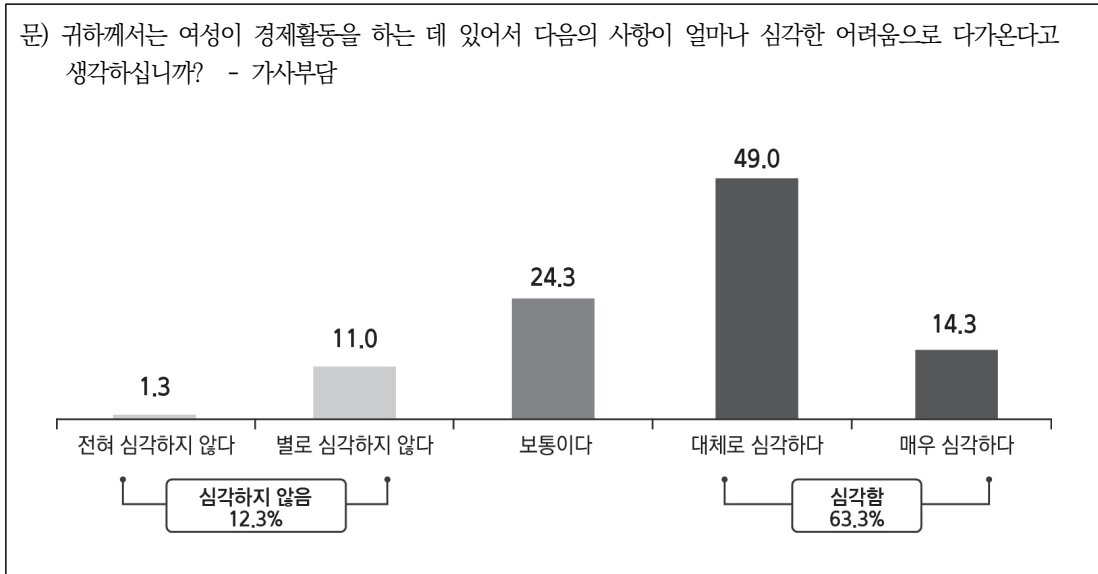
1) 가사부담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사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63.3%(매우 심각하다 : 14.3% + 대체로 심각하다 : 49.0%)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12.3%(전혀 심각하지 않다 : 1.3%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1.0%)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3-1〉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가사부담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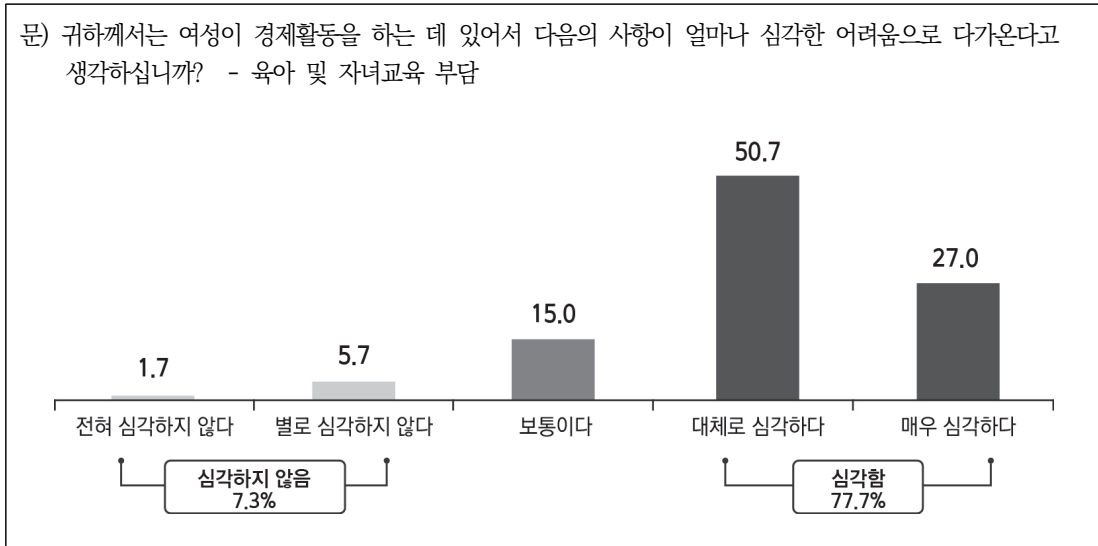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8세~30세가 3.96점(5점 평균 기준)으로 타 연령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가 4.17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77.7%(매우 심각하다 : 27.0% + 대체로 심각하다 : 50.7%)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7.3%(전혀 심각하지 않다 : 1.7%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7%)로 나타남.

〈그림 3-3-2〉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은 28세~30세가 4.3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가 4.67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부담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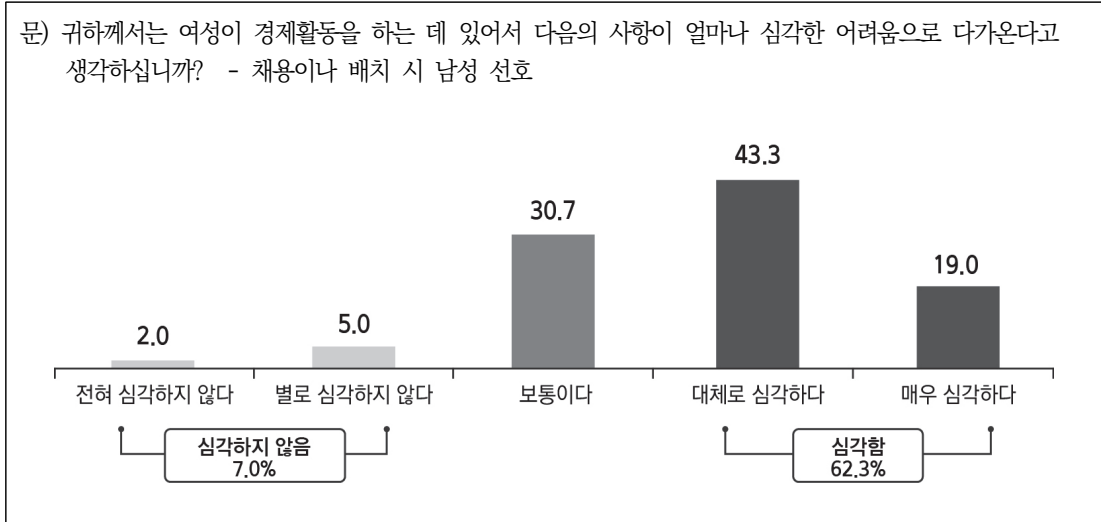
3) 채용이나 배치 시 남성 선호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채용이나 배치 시 남성선호'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62.3%(매우 심각하다 : 19.0% + 대체로 심각하다 : 43.3%)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7.0%(전혀 심각하지 않다 : 2.0%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0%)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3-3〉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채용이나 배치 시 남성 선호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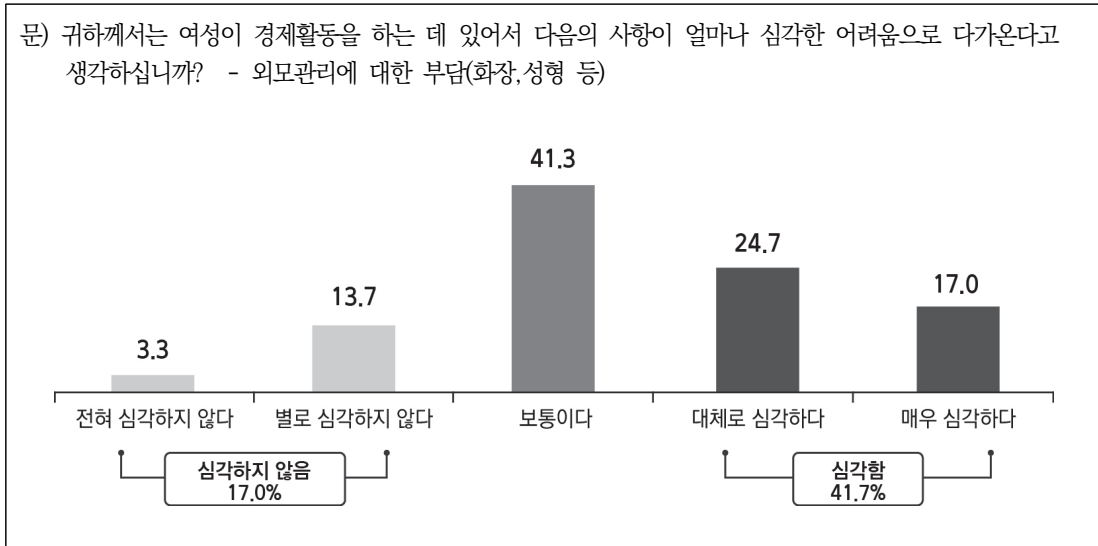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2세~24세가 3.83점으로 '심각함'에 대한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세~21세는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최종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가 4.3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학교 졸업은 3.64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4) 외모관리에 대한 부담(화장, 성형 등)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외모관리에 대한 부담(화장, 성형 등)'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41.7%(매우 심각하다 : 17.0% + 대체로 심각하다 : 24.7%)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17.0%(전혀 심각하지 않다 : 3.3%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13.7%)로 나타남.

〈그림 3-3-4〉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외모관리에 대한 부담(화장, 성형 등)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8세~30세가 3.58점으로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타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가 4.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재학이 3.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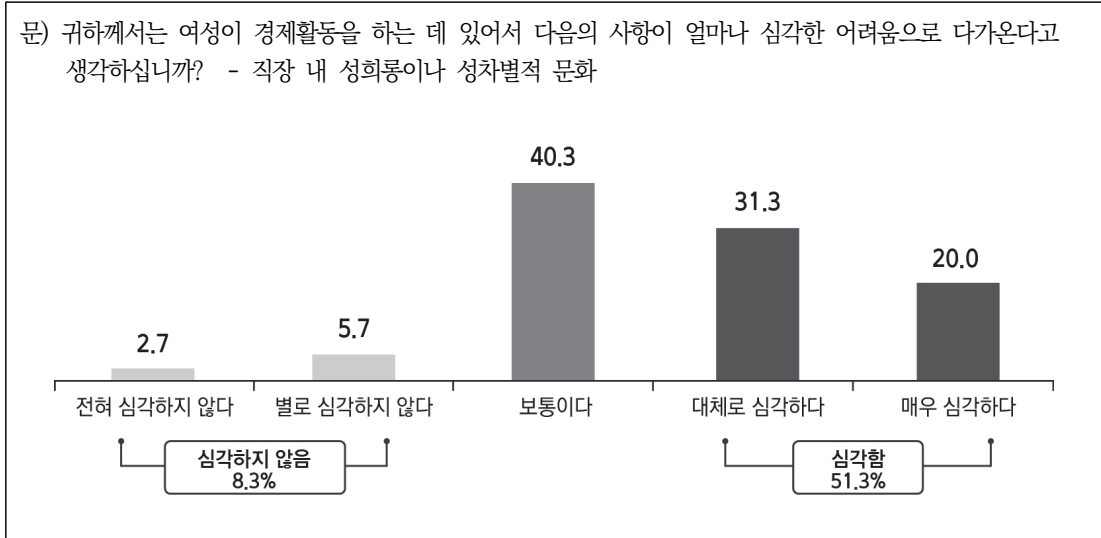
5)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문화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51.3%(매우 심각하다 : 20.0% + 대체로 심각하다 : 31.3%)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8.3%(전혀 심각하지 않다 : 2.7%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7%)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3-5〉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문화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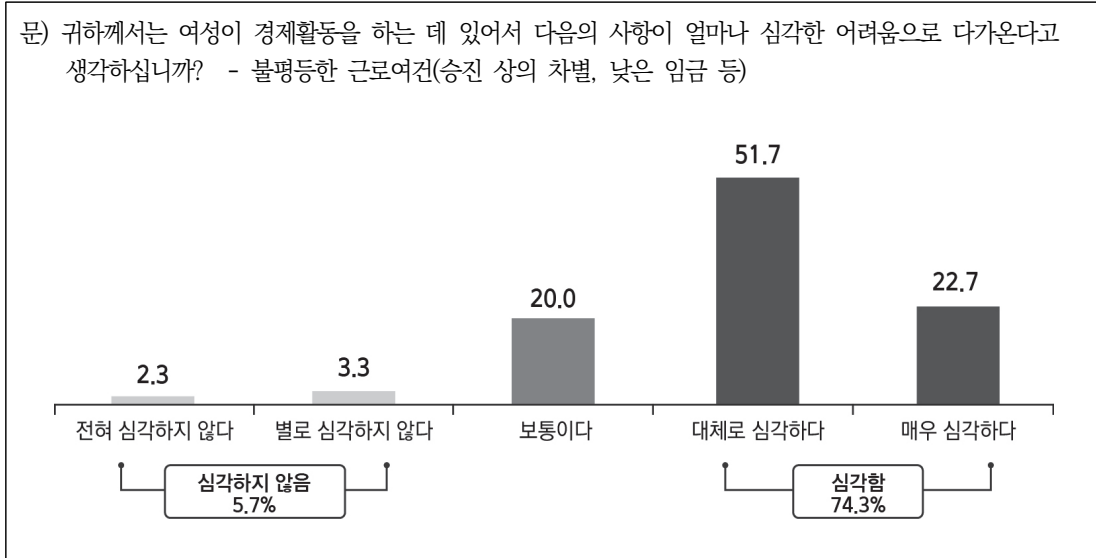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22세~24세가 3.6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8세~30세는 3.48점으로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17점으로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컸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6) 불평등한 근로여건(승진 상의 차별, 낮은 임금 등)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평등한 근로여건(승진 상의 차별, 낮은 임금 등)'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74.3%(매우 심각하다 22.7% + 대체로 심각하다 51.7%)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5.7%(전혀 심각하지 않다 2.3% + 별로 심각하지 않다 3.3%)로 나타남.

〈그림 3-3-6〉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불평등한 근로여건(승진 상의 차별, 낮은 임금 등)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8세~30세가 4.12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50점으로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교 재학이 3.82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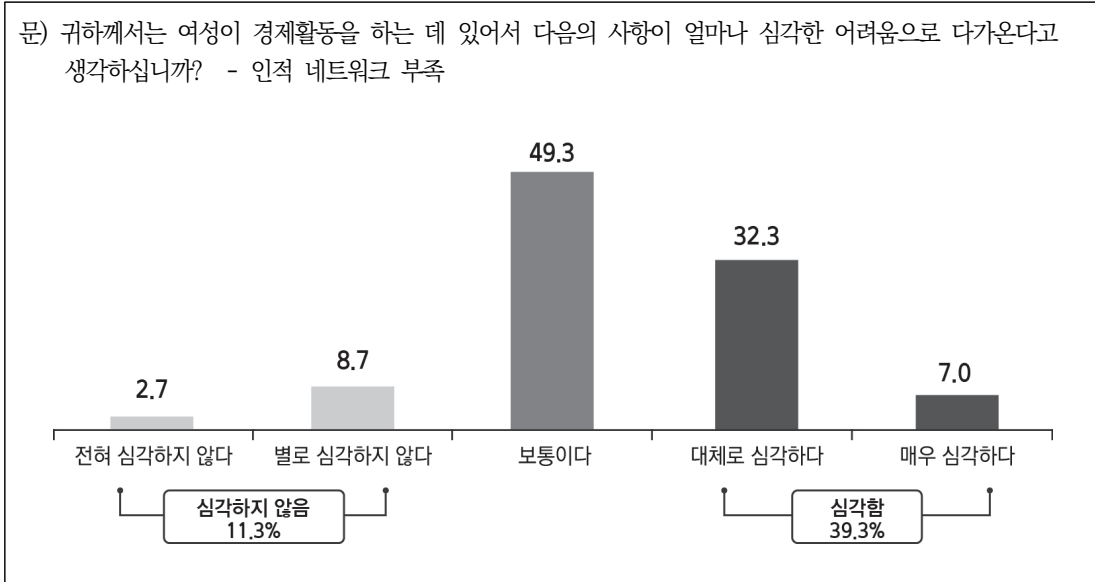
7) 인적 네트워크 부족

-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 결과,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39.3%(매우 심각하다 : 7.0% + 대체로 심각하다 : 32.3%)로 조사되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11.3%(전혀 심각하지 않다 : 2.7%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8.7%)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3-3-7〉 여성 경제활동의 장애요인 - 인적 네트워크 부족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5세~27세가 3.16점으로 타 연령에 비해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으며, 28세~30세는 3.56점으로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원 졸업이 3.00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고졸 이하가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검토

- 청년여성의 취업 애로요인과 관련해서는, 청년여성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 교육과정을 마친 후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여성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입사 준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을 선택한 응답자가 64%로 가장 높았음. 22세~24세 사이의 여성이 73.0%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취업 준비 전에는 막연한 어려움으로 느껴졌던 것이 실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실질적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여겨짐.
- 또한 그 다음으로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이 57.7%, '경력이 부족함'(57.3%) 등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도 관계됨. 연령대 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력이 부족함'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경우, 높은 취업의향과는 달리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취업을 위한 경력 준비 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자체도 어려움을 겪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갖춘 역량으로써 입사서류에 작성할 수 있는 경력 준비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음. 그러나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28세~30세 사이의 경우에는 28%가 나이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이상의 점을 정리해보면 재학시절보다는 졸업 이후부터 취업준비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시기에 본인의 경력이나 이른바 스펙 등 준비 미비로 인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상태에서 20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 나이로 인해 취업을 더욱 어렵게 느끼게 된다고 여겨짐.
 - 다음으로 청년여성이 재학시절을 마치고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67.0%로 가장 많았음. 반대로 '취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해서'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42.3%로 취업에 대한 열의는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취업에 대한 열의는 높은 데 반해 본인 또는 타인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이 취업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또는 특정 임용고시 등과 같이 특정 수험준비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과 '불평등한 근로여건', '가사부담' 등과 같이 일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장애요인과 관련해서는 외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모관리에 대한 부담이나 인적 네트워크 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50% 이상이 장애요인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앞선 청년여성이 취업을 준비할 때에 어려운 점이나 여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 성차별 등이 문제가 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취업 이후의 경제활동 시에는 불평등한 근로여건이나 직장 내 성희롱, 채용이나 배치 시 남성 선호 등 차별적 요인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또한 수험생 보다는 취업준비생인 경우에 이를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IV. 취업관련 젠더의식 및 교육 프로그램

- | | |
|----------|-----|
| 1. 조사 결과 | 055 |
| 2. 검토 | 075 |

IV

취업관련 젠더의식 및 관련 프로그램

1.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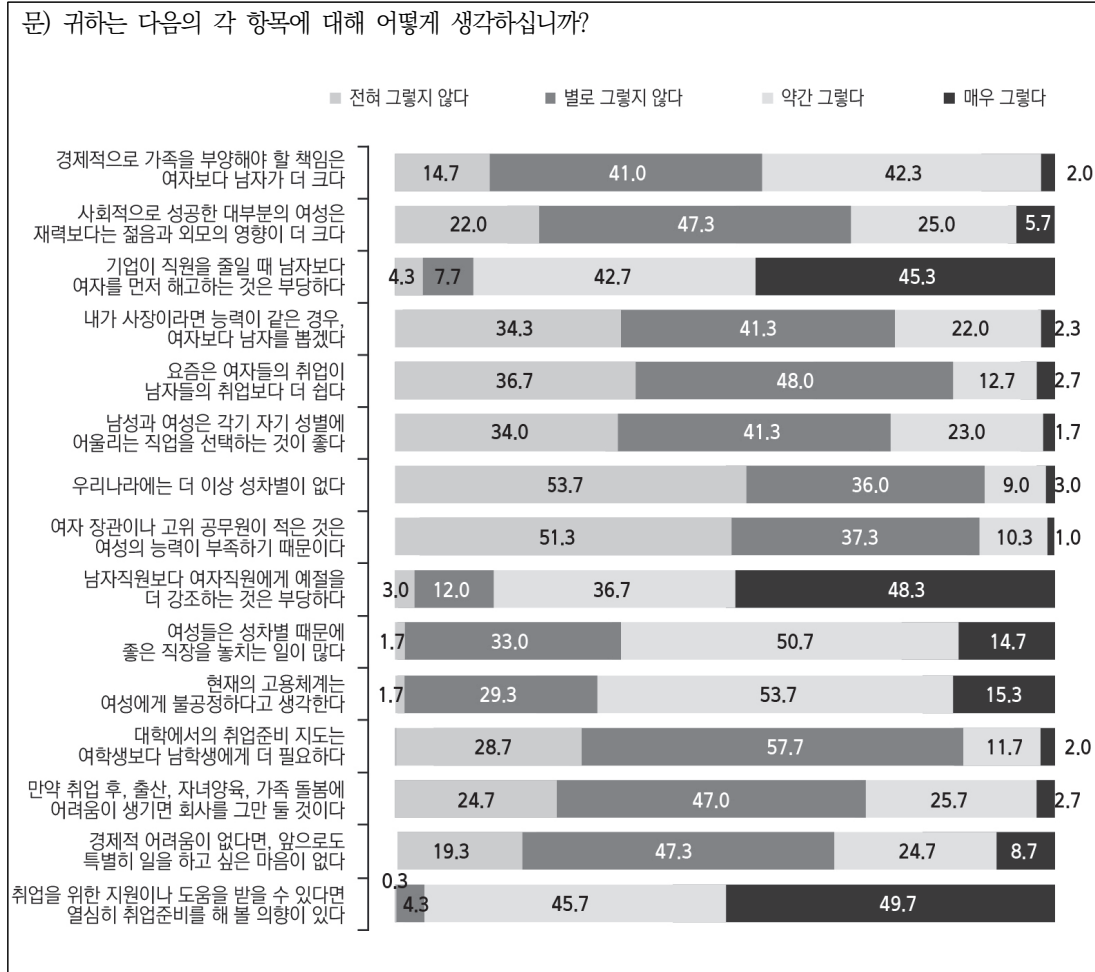
(1) 취업관련 젠더의식

- 취업관련 젠더의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취업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9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에 대한 의견은 동의/비동의 수준이 비슷하게 갈리는 것으로 파악됨.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 취업관련 젠더의식(요약)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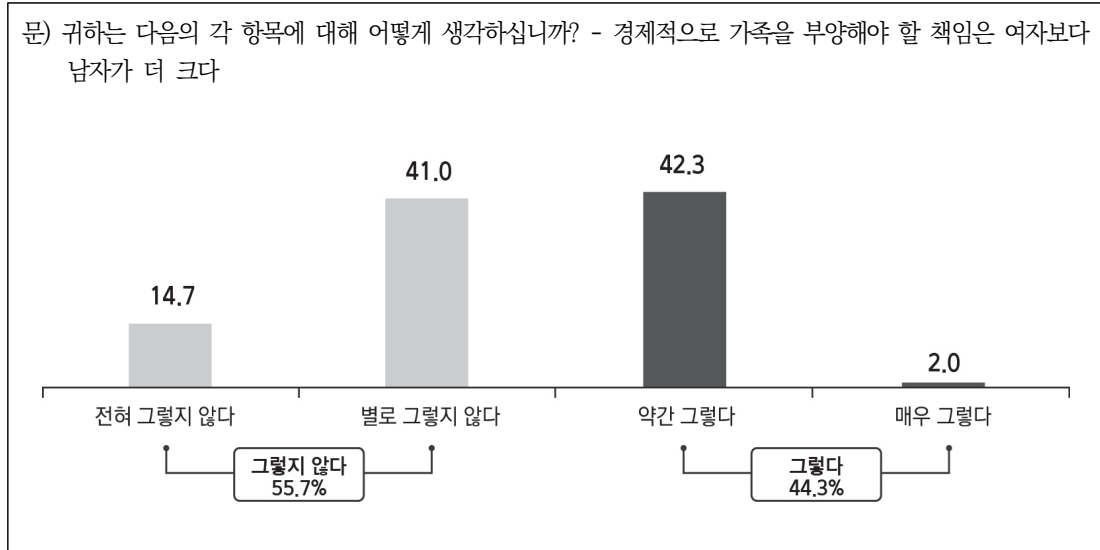


1)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44.3%(매우 그렇다 : 2.0% + 약간 그렇다 : 42.3%)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5.7%(전혀 그렇지 않다 : 14.7% + 별로 그렇지 않다 : 41.0%)로 조사되었음.

<그림 4-1-1> 취업관련 젠더의식 -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는 의견은 28세~30세에서 72.0%로 가장 높은 반면 25세~27세에서는 1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해당하는 응답은 고졸 이하가 66.7%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학원 재학은 31.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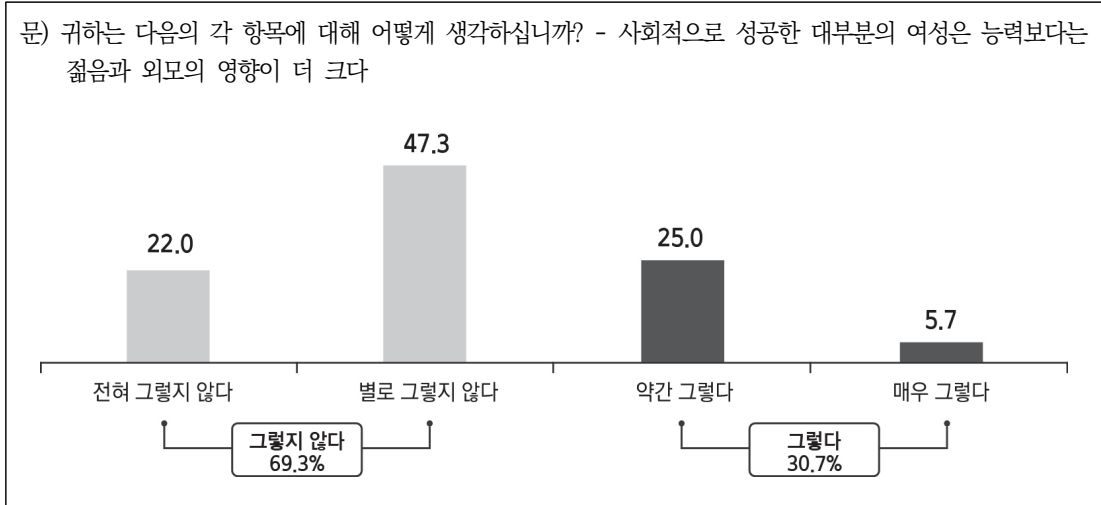
2)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보다는 젊음과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

-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보다는 젊음과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30.7%(매우 그렇다 : 5.7% + 약간 그렇다 : 25.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9.3%(전혀 그렇지 않다 : 22.0% + 별로 그렇지 않다 : 47.3%)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2〉 취업관련 젠더의식 -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보다는 젊음과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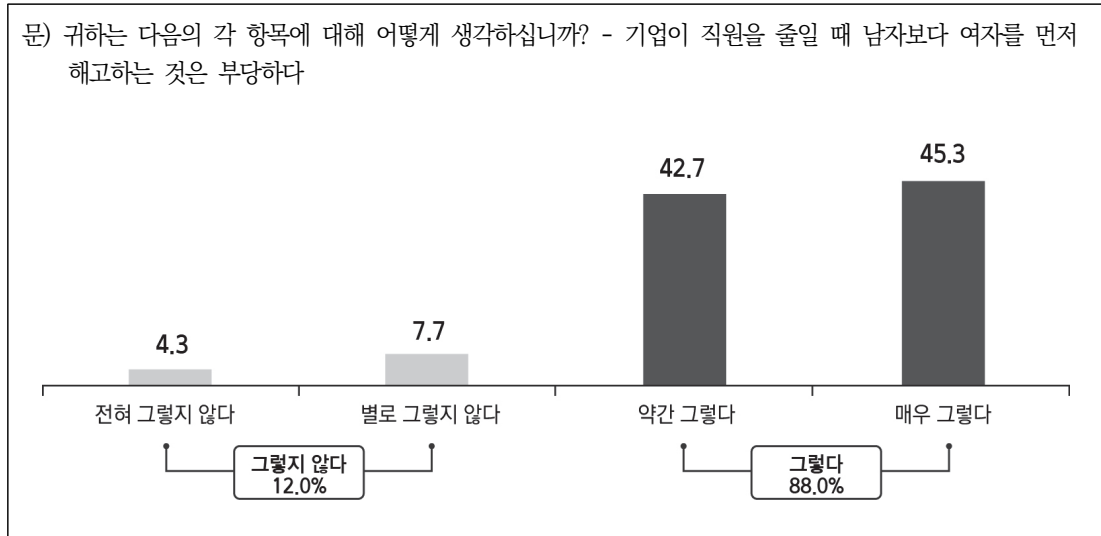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8세~30세에서 78.0%로 가장 높은 반면 19세~21세는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39.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고졸 이하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재학은 1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3)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8.0%(매우 그렇다 : 45.3% + 약간 그렇다 : 42.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0%(전혀 그렇지 않다 : 4.3% + 별로 그렇지 않다 : 7.7%)로 조사되었음.

〈그림 4-1-3〉 취업관련 젠더의식 -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22세~24세가 90.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대학원 재학이 15.8%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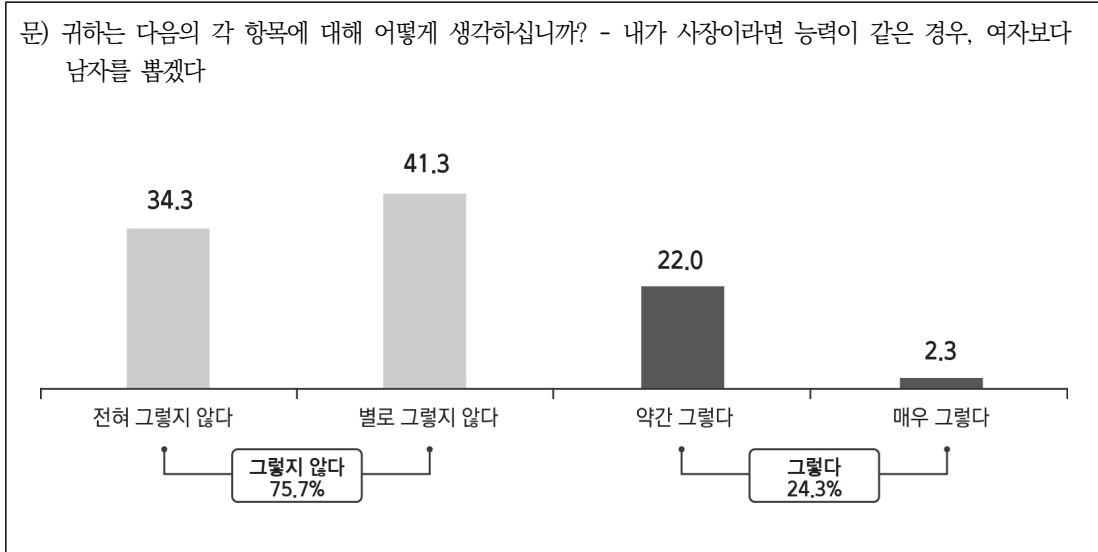
4)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24.3%(매우 그렇다 : 2.3% + 약간 그렇다 : 22.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5.7%(전혀 그렇지 않다 : 34.3% + 별로 그렇지 않다 : 41.3%)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4〉 취업관련 젠더의식 -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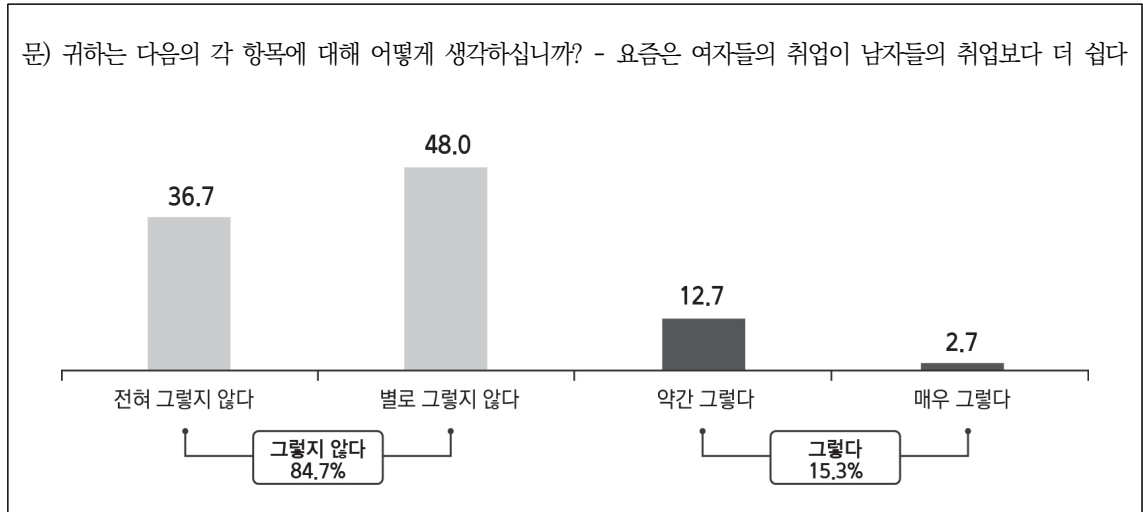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25세~27세에서 3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고졸 이하가 33.3%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학원 재학은 2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요즘은 여자들의 취업이 남자들의 취업보다 더 쉽다

- '요즘은 여자들의 취업이 남자들의 취업보다 더 쉽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15.3%(매우 그렇다 : 2.7% + 약간 그렇다 : 12.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4.7%(전혀 그렇지 않다 : 36.7% + 별로 그렇지 않다 : 48.0%)로 조사되었음.

〈그림 4-1-5〉 취업관련 젠더의식 - 요즘은 여자들의 취업이 남자들의 취업보다 더 쉽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5세~27세에서 9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대학원 재학에서 10.5%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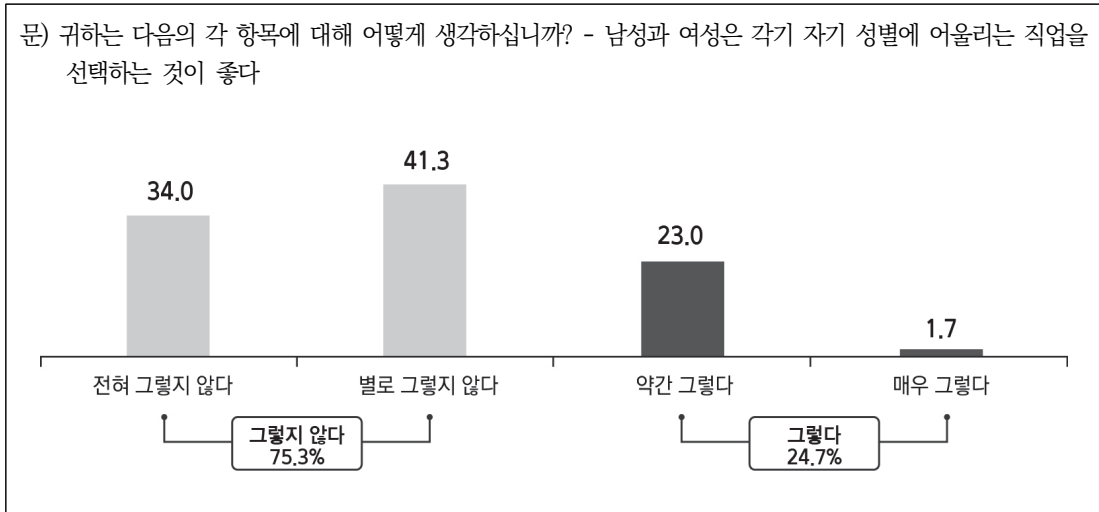
6)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기 성별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기 성별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24.7%(매우 그렇다 : 1.7% + 약간 그렇다 : 23.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5.3%(전혀 그렇지 않다 : 34.0% + 별로 그렇지 않다 : 41.3%)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6〉 취업관련 젠더의식 -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기 성별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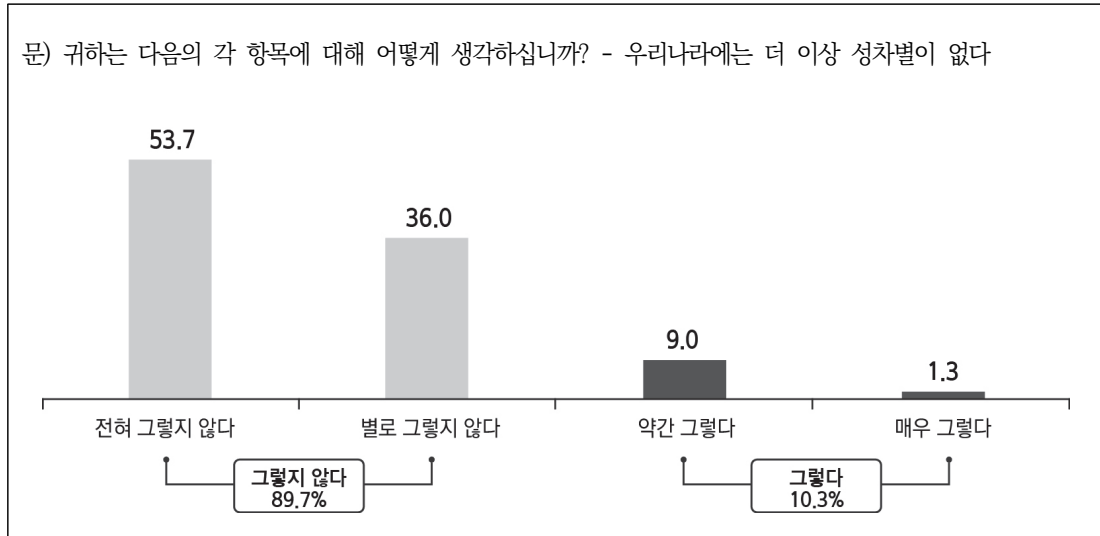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고졸 이하가 16.7%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7)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

-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10.3%(매우 그렇다 : 1.3% + 약간 그렇다 : 9.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9.7%(전혀 그렇지 않다 : 53.7% + 별로 그렇지 않다 : 36.0%)로 조사되었음.

〈그림 4-1-7〉 취업관련 젠더의식 -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19세~21세가 1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8세~30세는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대학교 재학에서 12.6%로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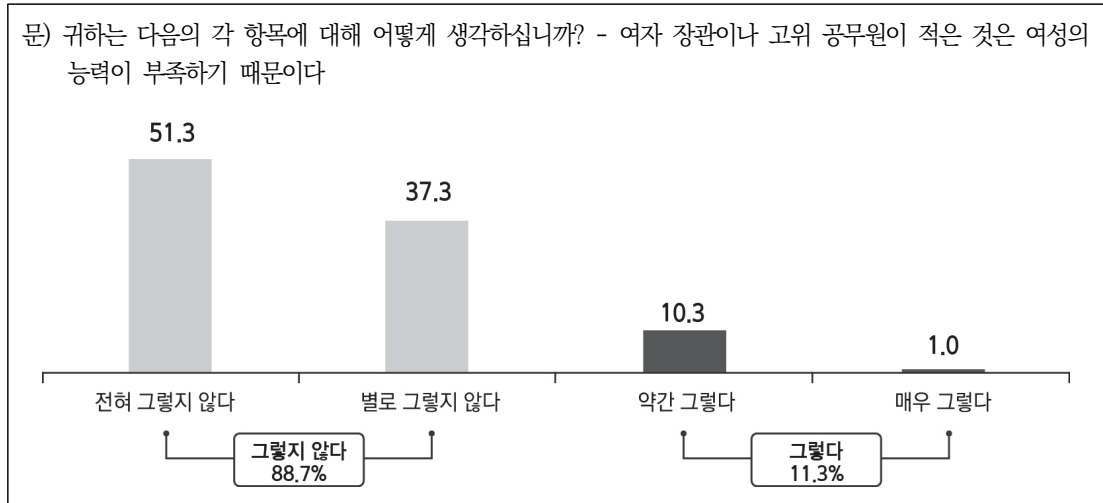
8)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11.3%(매우 그렇다 : 1.0% + 약간 그렇다 : 10.3%)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8.7%(전혀 그렇지 않다 : 51.3% + 별로 그렇지 않다 : 37.3%)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8〉 취업관련 젠더의식 -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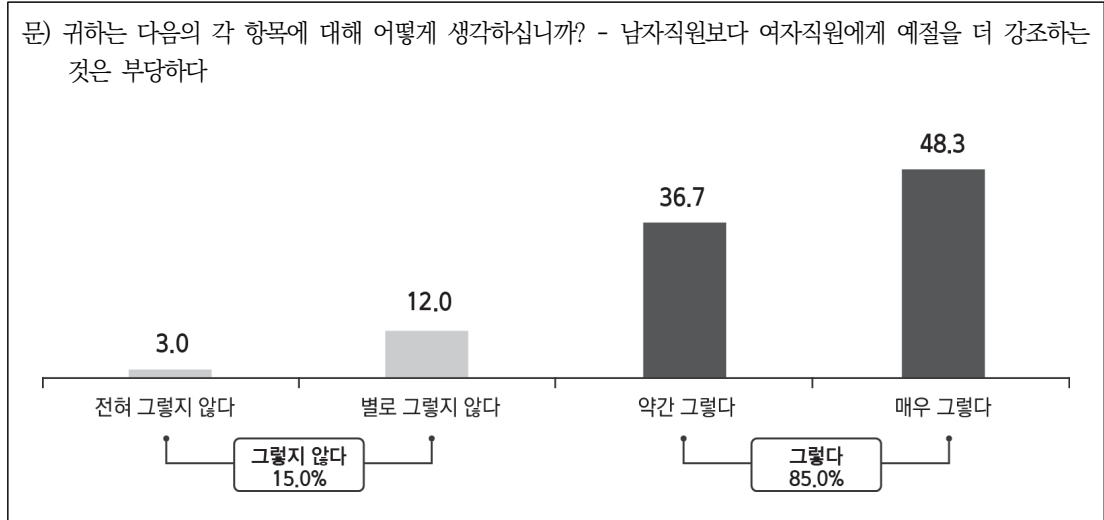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25~27세가 4.0%로 가장 낮은 반면, 28세~30세에서는 18.0%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대학교 제학에서 10.6%로 가장 낮은 반면, 고졸 이하에서는 16.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9)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5.0%(매우 그렇다 : 48.3% + 약간 그렇다 : 36.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0%(전혀 그렇지 않다 : 3.0% + 별로 그렇지 않다 : 12.0%)로 조사되었음.

〈그림 4-1-9〉 취업관련 젠더의식 -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28세~30세에서 9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고졸 이하에서 66.7%로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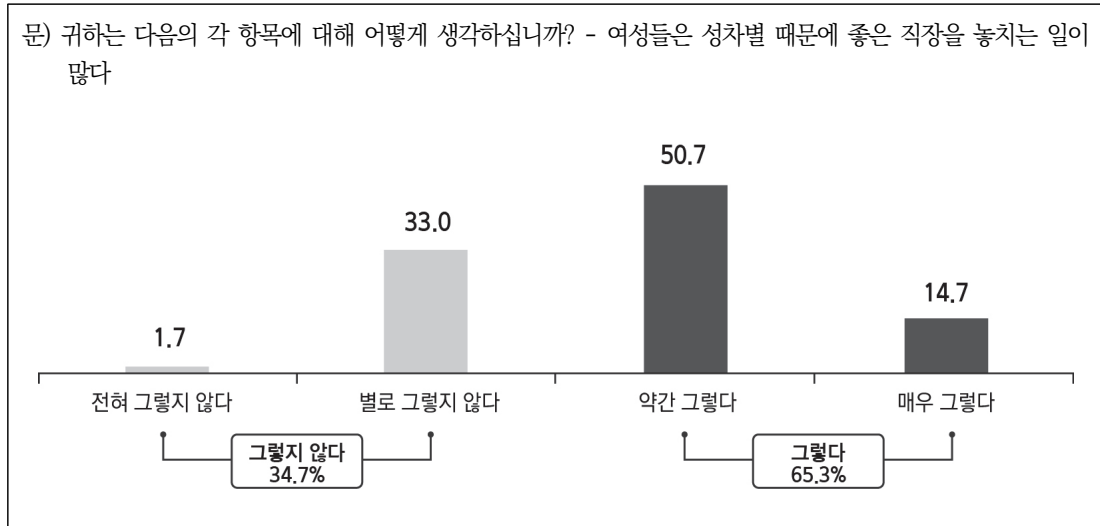
10)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놓치는 일이 많다

-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놓치는 일이 많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65.3%(매우 그렇다 : 14.7% + 약간 그렇다 : 50.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4.7%(전혀 그렇지 않다 : 1.7% + 별로 그렇지 않다 : 33.0%)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10〉 취업관련 젠더의식 -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놓치는 일이 많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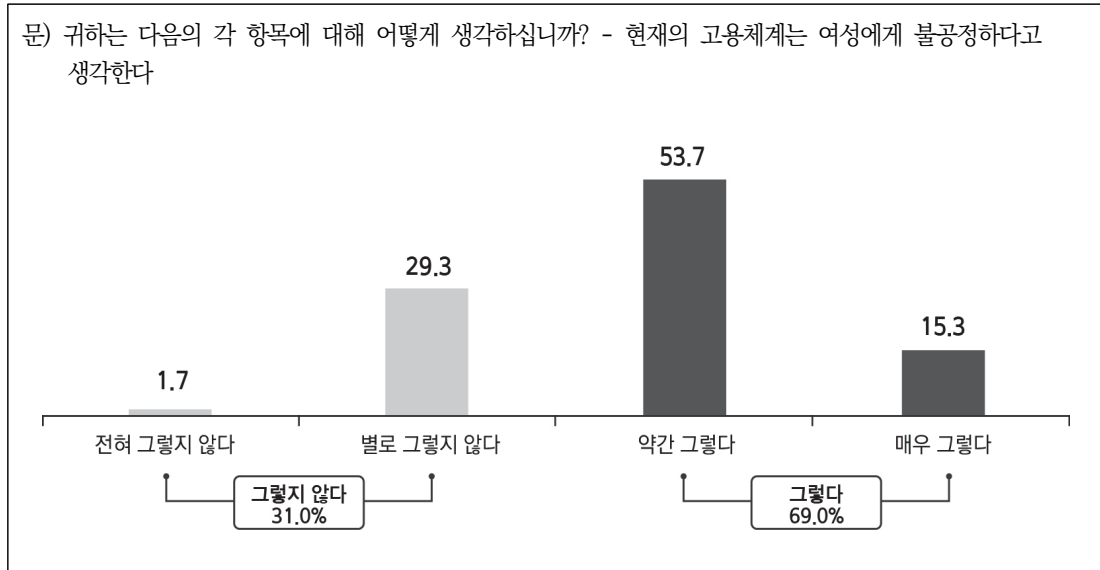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28세~30세에서 44.0%로 타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비교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대학원 재학이 52.6%로 가장 낮았으며 대학교 재학이 69.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11) 현재의 고용체계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의 고용체계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69.0%(매우 그렇다 : 15.3% + 약간 그렇다 : 53.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0%(전혀 그렇지 않다 : 1.7% + 별로 그렇지 않다 : 29.3%)로 조사되었음.

〈그림 4-1-11〉 취업관련 젠더의식 - 현재의 고용체계가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28세~30세가 54.0%로 가장 낮았으며, 22세~24세에서는 80.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에 대한 응답은 고졸 이하가 5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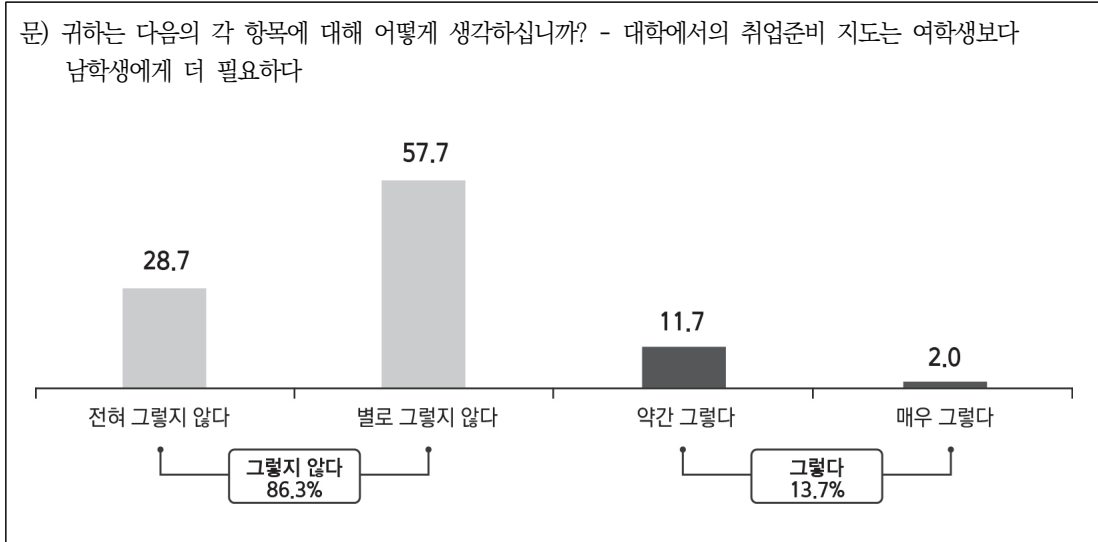
12)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13.7%(매우 그렇다 : 2.0% + 약간 그렇다 : 11.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6.3%(전혀 그렇지 않다 : 28.7% + 별로 그렇지 않다 : 57.7%)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12〉 취업관련 젠더의식 -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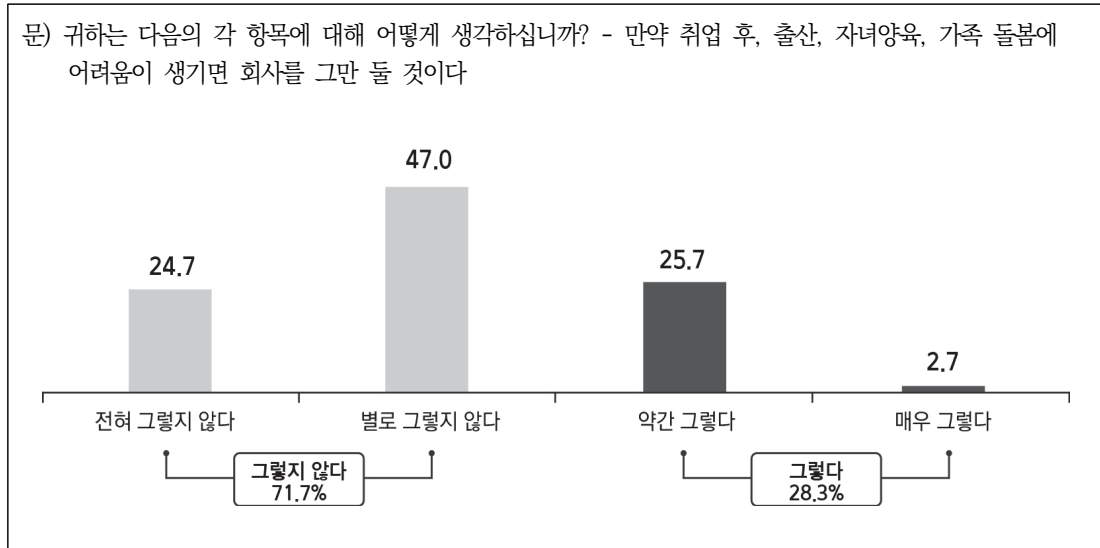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19세~24세의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응답은 고졸 이하가 33.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원 재학이 10.5%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 지도가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13) 만약 취업 후, 출산, 자녀양육,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

- '만약 취업 후, 출산, 자녀양육,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28.3%(매우 그렇다 : 2.7% + 약간 그렇다 : 25.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1.7%(전혀 그렇지 않다 : 24.7% + 별로 그렇지 않다 : 47.0%)로 조사되었음.

〈그림 4-1-13〉 취업관련 젠더의식 - 만약 취업 후, 출산, 자녀양육,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은 25세~27세에서 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고졸 이하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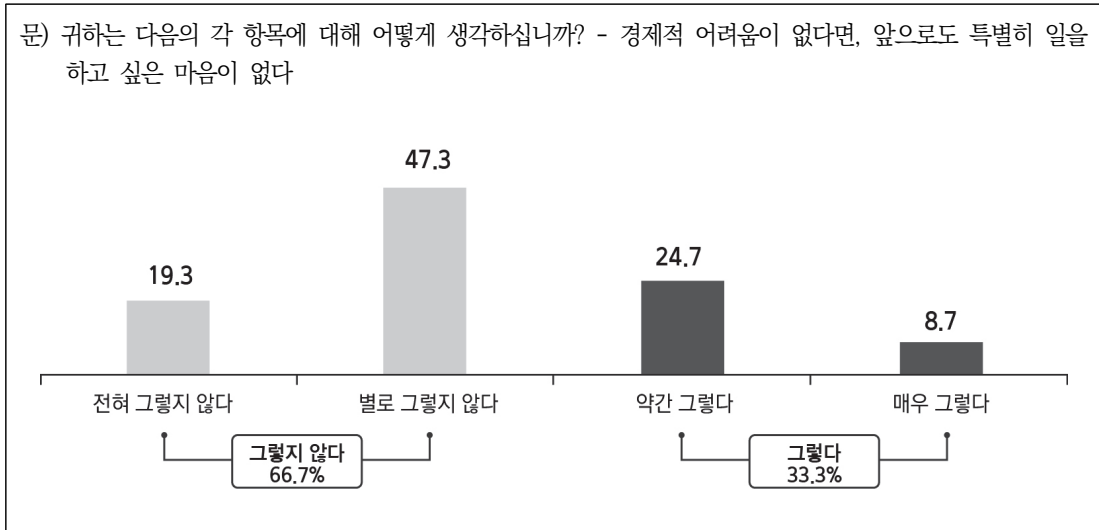
14)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33.3%(매우 그렇다 : 8.7% + 약간 그렇다 : 24.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6.7%(전혀 그렇지 않다 : 19.3% + 별로 그렇지 않다 : 47.3%)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1-14〉 취업관련 젠더의식 -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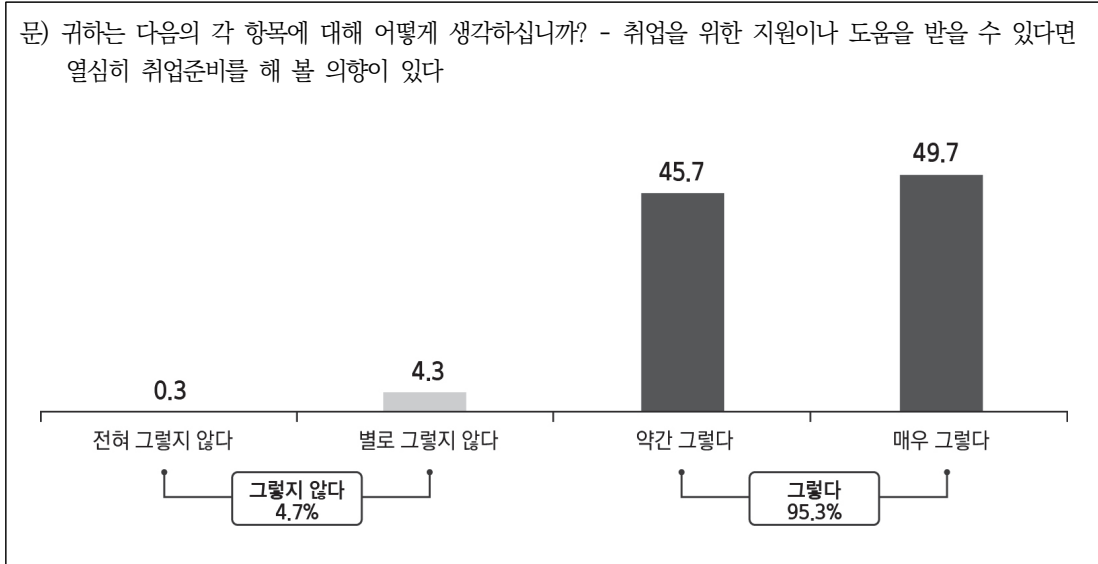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 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최종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의견은 고졸 이하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19.4%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15) 취업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

- ‘취업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95.3%(매우 그렇다 : 49.7% + 약간 그렇다 : 45.7%)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7%(전혀 그렇지 않다 : 0.3% + 별로 그렇지 않다 : 4.3%)로 조사되었음.

〈그림 4-1-15〉 취업관련 젠더의식 - 취업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

(n=300,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최종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교 재학의 경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94.2%로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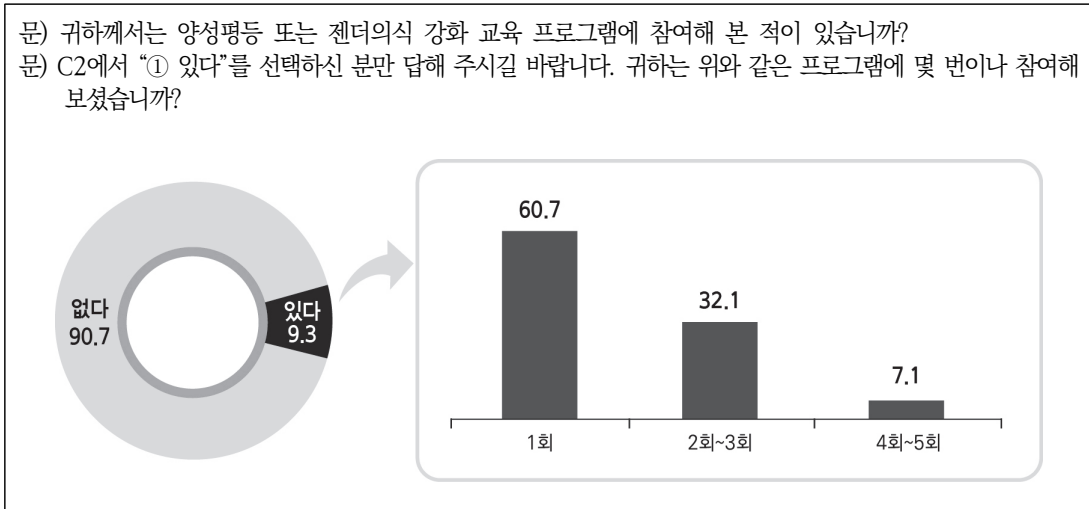
1)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참여 경험 및 횟수

-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교육 참여 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없다'가 90.7%, '있다'가 9.3%로 차이를 보였음.
- '있다'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 횟수를 살펴본 결과, '1회'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3회'가 32.1%. '4회~5회'가 7.1% 순으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2〉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참여 경험 및 횟수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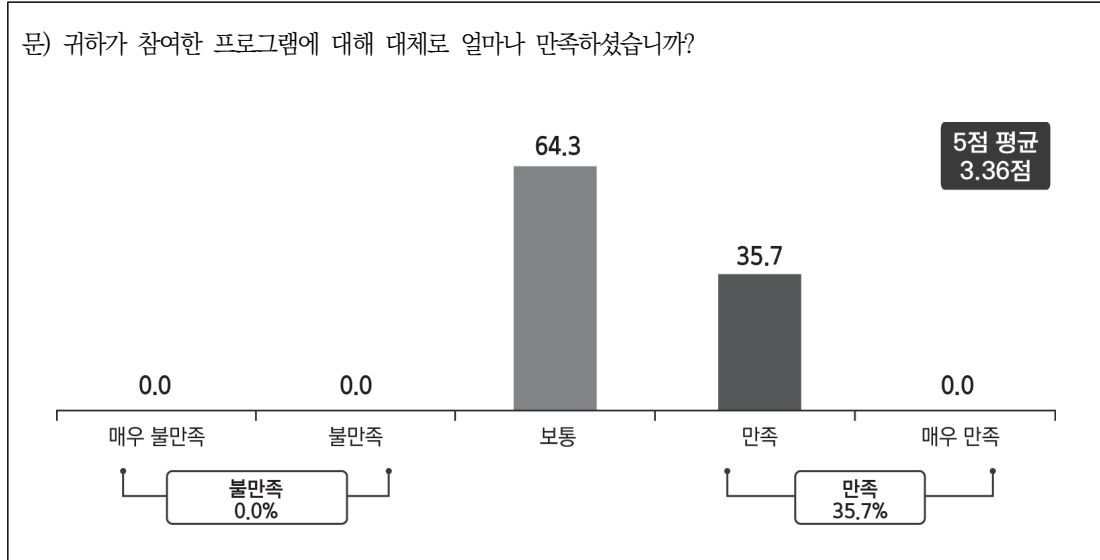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없다'라는 응답은 19세~21세가 94.0%로 가장 높았으며, 28세~30세는 86.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있다'라는 응답은 대학원 재학이 15.8%로 가장 높은 반면 고졸 이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이라는 응답은 35.7%(매우 만족 : 0.0% + 만족 : 35.7%)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0.0%(매우 불만족 : 0.0% + 불만족 : 0.0%)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3〉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n=28, 단위: %, 점)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2세~24세가 3.55점(5점 평균 기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28세~30세는 3.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의 경우 3.43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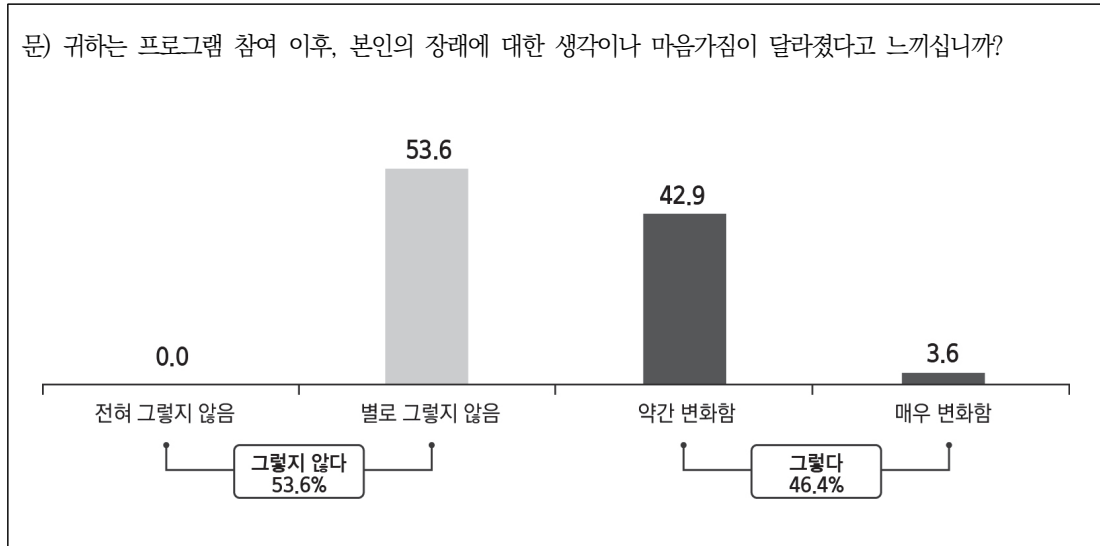
3)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후 생각 전환 여부

-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 생각의 전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변화함’이라는 응답은 46.4%(매우 변화함 : 3.6% + 약간 변화함 : 42.9%)로 나타났으며, ‘변화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53.6%(전혀 그렇지 않음 : 0.0% + 별로 그렇지 않음 : 53.6%)로 조사되었음.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그림 4-4〉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후 생각 전환 여부

(n=28, 단위: %)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변화함’에 해당하는 응답은 28세~30세에서 28.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5세~27세는 10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종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변화함’에 대한 응답은 대학원 재학(석/박사)가 66.7%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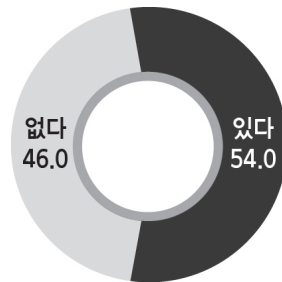
4) 향후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향후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54.0%로 과반이상의 응답률을 보임.

〈그림 4-5〉 향후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n=300, 단위: %.)

문) 향후 양성평등 또는 젠더의식 교육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있다’에 해당하는 응답은 25세~27세가 58.0%로 가장 높은 반면, 28세~30세는 50.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최종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없다’라는 응답은 대학원 재학이 36.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50.0%)과 대학교 졸업(50.7%)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 검토

- 취업관련 젠더의식 및 관련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설문 중, 취업관련 젠더의식에 관한 부분부터 살펴보고자 함. 먼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은 44.3%, ‘그렇지 않다’에 속하는 응답은 55.7%로 나타났음. 객관적인 수치로만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에 속하는 답을 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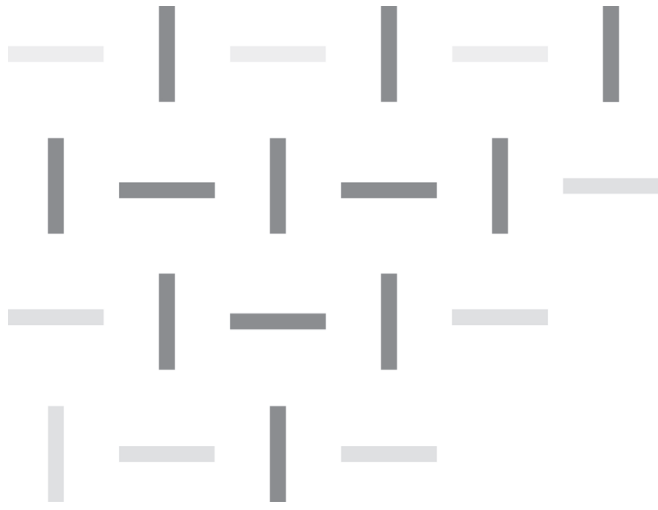
이나, 개개인이 독립 생계의 책임자이자 가정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가사나 육아, 경제활동 등 일·생활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여전히 가족 부양의 책임을 남성이 더 안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여겨짐.

-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보다는 젊음과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은 30.7%로 '그렇지 않다'에 속하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19세~21세 사이의 응답자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9.0%가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을 하였음. 이에 젠더의식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보다 더 저 연령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수험생 신분인 응답자의 38.9%가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을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은 능력보다는 능력 이외의 요소로 인해 스스로가 취업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부담감이 공무원 등과 같은 특정 수험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한편,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이 24.3%, '그렇지 않다'에 속하는 응답은 75.8%로, 이 역시도 조사결과만으로는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응답자의 약 1/4이 어떠한 이유로든 여성보다 남성이 업무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 시에 잠재되어 있는 편견을 청년여성 스스로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여겨짐. 또한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기 성별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이 26.0%로, 앞서 서술한 질문과 유사한 비율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있는 것을 나타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응답자의 25% 내외이기는 하나, 직업과 고용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청년여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9.7%라는 높은 비율로 '그렇지 않다'를 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놓치는 일이 많다'라는 질문이나, '현재의 고용체제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그렇지 않다'에 속하는 답을 한 응답자가 34.7%와 31.0%로, 고용에 있어서는 성차별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자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어서, '만약 취업 후, 출산, 자녀양육,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28.3%가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육아나 양육의 책임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19세~21세 사이의 응답자 중에서는 39.0%로 매우 높은 비율로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을 하였음. 앞선 질문 중에서 사회적 성공과 여성의 외모 및 젊음에 관한 응답결과와 같이, 본 질문에 대해서도 특히 낮은 연령대에서 이러한 응답률이 높다는 것은 저 연령대에서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편견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을 갖게 하는 결과라 여겨짐.
-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3.3%이고, 19세~21세 사이의 응답자 중에서는 41.0%가 '그렇다'에 속하는 응답을 한 점에 비추어, 개개인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직업이나 취업 문제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직업과 취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 반면에, '취업을 위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에 속하는 답은 95.3%에 달하는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 앞선 취업의향에 관한 설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의 경제적 여건 상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은 것으로 이해됨.
- 다음으로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에 관한 설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먼저 관련 교육 참여 경험 및 횟수를 묻는 설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은 단 9.3%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60.1%는 단 1회의 참여 경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 청년여성이 양성평등 내지 젠더의식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 질문한 결과, '불만족'에 속하는 답을 한 응답자는 없었고, '만족'에 해당하는 답을 한 응답자는 35.7%로 나타났으나, 동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4.3%로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높은 점, 양성평등·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 후 생각의 전환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변화하지 않음'에 속하는 답을 한 응답자가 53.6%로 '변화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더욱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짐. 또한 향후 양성평등 내지 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응답 역시도 과반을 약간 넘긴 정도에 그쳐,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V. 결론

V

결론

-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취업관련 특성 및 취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젠더의식 강화방안 마련의 방향성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함.
- 먼저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의향이 매우 높고,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또는 생계유지를 들고 있음. 이는 매우 현실적인 요인으로써 청년여성의 취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취업 의향이 구체적인 진로 설정이나 취업 준비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실제로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지 않고, 또는 취업준비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채 취업을 해야하는 시점에 취업준비와 구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노력이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직업 특성을 가지지 않는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외국어 공부에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적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러한 특징은 청년여성의 취업 애로요인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즉, 청년여성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입사 준비서류 작성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나 지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한 탓에 입사 준비서류에 작성할 수 있을 만한 학력이나 자격, 기술, 능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취업준비 기간을 갖지 않고,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한 이후에도 외국어 회화 등 일반적인 학습에 지나지 않는 준비를 하게 된다면 취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임. 동시에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간이 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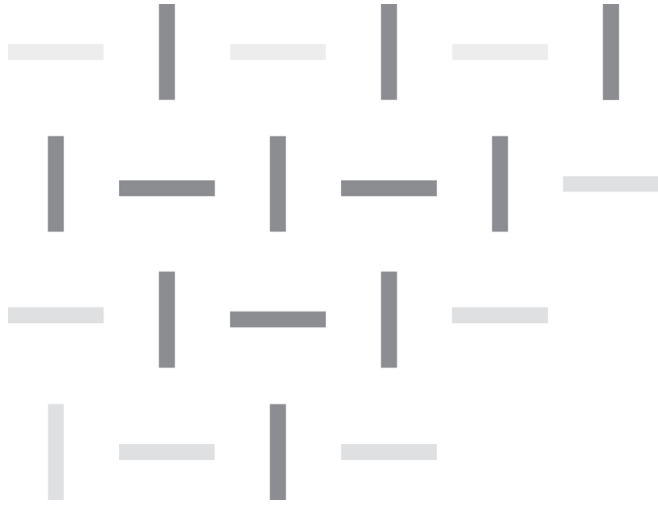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지게 되고, 그 상태로 20대 후반이 되면 점차 나이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특성은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도 하겠으나, 이에 더하여 여성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더욱 취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육아나 자녀교육, 불평등한 근로여건, 가사부담 등 일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을 들면서도, 반대로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성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 수 있으며, 저연령층에 있어서는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이 여성의 몫이라 여기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차별이 고용이나 취업의 단계에서는 많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불평등한 근로여건이나 성희롱, 채용이나 배치 시의 남성 선호와 같은 차별적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경제활동 유지의 어려움으로 들고 있어, 청년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대부분 본인의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본인이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고, 취업을 위한 외부의 도움이 있다면 성실히 취업준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인 재학 시절부터 제대로 된 직업의식을 갖게 하고, 개별적인 취업 가이드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담당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그리고 그러한 직업의식의 밑바탕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경제활동 담당자로서 성별에 따른 능력의 격차는 없으며, 취업이나 직업 선택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취업이나 고용에 있어서도 공평한 기회나 대우를 받아야 함을 명백히 인식하게 한다면,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취업 활성화는 물론 고용 유지에 있어서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을 간단히 제시하자면, 울산지역에서는 여전히 양성평등이나 젠더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이에 따라 이를 접해 본 청년여성도 많지 않음. 그러한 연유로 특히 19세~21세와 같이 갓 고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에 비해 젠더의식이 더욱 낮은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여성이 육아나 가사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여성이나 남성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중고교와 같이 직업의식을 갖추기 시작해야 할 시기에서부터 젠더의식 강화교육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이나 젠더의식 강화와 관련된 교육은 개최되는 횟수도 많지 않고, 그 내용 역시도 청년여성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거나 유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이에 따라, 젠더의식 강화프로그램과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형태의 청년여성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등 실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젠더의식 고취를 통한 경제활동의 중요성과 취업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학 시절 단계에서 지식 습득과 함께 사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자칫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편견에 빠져 스스로의 취업 준비를 늦추거나 제대로 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아 취업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노력은 가사나 육아에 따른 고용 유지의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경제활동 유지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라 여겨짐.
- 본 보고서는 청년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젠더의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및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상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정밀한 울산지역 청년여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부록

부록 1. 설문지

087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울산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안녕하십니까?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울산광역시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청년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젠더의식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연구에서의 「젠더의식」이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누구도 성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함.

2018년 11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주 관 기 관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책임 연구자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배미란 연구위원

일반적 특성(남성, 19세 미만자 응답중단)

SQ1. 연령	① 19세-21세	② 22세-24세	③ 25세-27세	④ 28세-30세			
SQ2. 거주지역	① 중구	② 남구	③ 동구	④ 북구	⑤ 울주군		
SQ3.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동거(사실혼)	④ 이혼/별거/사별	⑤ 기타()		
SQ4. 거주형태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가족과 살고 있음 ③ 기타() ※ 예시 : 친구와 살고있음 등						
SQ5.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재학(석/박사)	⑤ 대학원 졸업(석/박사)		
SQ6. 월간 평균 생활비	① 30만원 이하	② 30 이상-50만원 미만	③ 50 이상-70만원 미만	④ 70 이상-100만원 미만	⑤ 100 이상-150만원 미만	⑥ 150 이상-200만원 이하	⑦ 200만원 이상
SQ7. 생활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	① 본인	② 부모	③ 배우자(동거자 포함)	④ 본인과 부모 공동			
	⑤ 본인과 배우자 공동	⑥ 기타()					
SQ8. 현재 직업	① 학생	② 취업준비생	③ 진학준비생	④ 수험생(공무원 등)		⑤ 기타()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 청년여성의 취업 의향

A1. 귀하는 향후 취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높다

A2. 귀하가 취업을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청년여성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② 노후 대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
 ③ 나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④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타인이 취업을 권유하므로
 ⑤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⑥ 기타()

A3. 귀하는 현재 취업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 ① 희망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② 희망 직업을 결정하였으나, 아직 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③ 취업 또는 진학 등 대략적인 진로 방향만 결정하였다.
 ④ 아직 구체적으로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⑤ 취업할 의향이 없다.
 ⑥ 기타()

A4. 귀하는 언제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또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교졸업 전부터
 ② 고교졸업 직후부터
 ③ 21세~22세 사이
 ④ 23세~25세 사이
 ⑤ 25세~28세 사이
 ⑥ 28세 이상
 ⑦ 기타()

A5. 귀하는 취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외국어 회화/토익, 토플 등 준비 | <input type="checkbox"/> ② 공무원, 행정고시 등 시험 준비 | <input type="checkbox"/> ③ 면접훈련 |
| <input type="checkbox"/> ④ IT, 컴퓨터 등 관련교육 | <input type="checkbox"/> ⑤ 취업박람회 참여 | <input type="checkbox"/> ⑥ 취업알선기관 구직 상담/교육 |
| <input type="checkbox"/> ⑦ 친인척/친구 등에게 취업부탁 | <input type="checkbox"/> ⑧ 자격증 취득 | <input type="checkbox"/> ⑨ 외모관리 |
| <input type="checkbox"/> ⑩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A6. 귀하는 현재 또는 향후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높다

B. 청년여성이 겪는 취업 어려움

B1. 다음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시고 있으십니까?

번호	세부원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1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기 힘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3	경력이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4	성차별을 느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5	학력, 학벌, 능력(스펙, 자격증 등)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6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한 차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7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8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9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10	입사 준비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11	나이가 많거나 너무 적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12	창업자금이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1-13	기타(사유 :)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B2. 다음은 학생들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또는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세부원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2-1	취업목표 부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2	취업에 대한 열의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3	취업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4	취업이 잘 안되는 전공을 선택한 탓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5	보이지 않는 성차별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6	공무원(임용고시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7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자격증, 영어성적 등) 준비가 부족해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2-8	기타(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 귀하께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B3-1. 가사부담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2.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3. 채용이나 배치 시 남성 선호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4. 외모관리에 대한 부담(화장, 성형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5.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문화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6. 불평등한 근로조건(승진 상의 차별, 낮은 임금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B3-7. 인적 네트워크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C. 취업관련 젠더의식 및 관련 프로그램 등

C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1)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2)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보다는 젊음과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3)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4)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은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5) 요즘은 여자들의 취업이 남자들의 취업보다 더 쉽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6)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자기 성별에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7)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8)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9)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0) 여성들은 성차별 때문에 좋은 직장을 놓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1) 현재의 고용체제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2)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3) 만약 취업 후, 출산, 자녀양육,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4)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앞으로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①	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15) 취업을 위한 자원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취업준비를 해 볼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C2. 귀하께서는 양성평등 또는 젠더의식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C3.으로)

② 없다(→ C4.로)

C3. C2에서 “① 있다”를 선택하신 분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몇 번이나 참여해 보셨습니까?

① 1회

② 2회~3회

③ 4회~5회

④ 5회~10회

⑤ 10회 이상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C3-1. 귀하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다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C3-2. 귀하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본인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변화함 ④ 매우 변화함

C4. 향후 양성평등 또는 젠더의식 교육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C2.로) ② 없다(→ C1-2.로)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울산광역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발행인 : 이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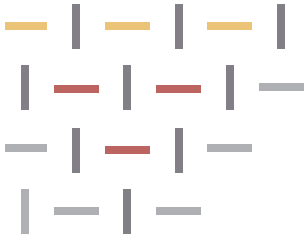
발행일 :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주소 _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전화 _ (052) 276-8553

팩스 _ (052) 276-8556



UWFDI 연구보고서 2018-06

울산시 청년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방안

A Study on Gender Consciousness Enhancement Strategy for
Employment of Young Women in Ulsan Metropolitan City



본 자료의 저작권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T 052-276-8553 F 052-276-8556 www.uwfdi.re.kr

비매품/무료



9 791196 579135

ISBN 979-11-965791-3-5